역주 力走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였다.

먹구름을 몰아내고 위풍도 당당히 나아가는 창가동지(創價同志)들의 기상을 나타내듯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1978년 11월 18일 오후, 도쿄 아라카와문화회관에서 본부총회의 의의를 담아 창가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본부간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학회는 이듬해인 1979년을 '인재육성의 해'로 정하고 힘차게 도움닫기를 시작했다.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 간부회에서, 학회가 7년마다 전진의 마디를 새겨온 '일곱개의 종'이 내년에는 모두 끝난다고 말하고 내후년인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전진의 마디를 새긴다고 발표했다.

또 '11· 18'을 기념해 바야흐로 인류의 과제가 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등에 관련해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19일자 <세이쿄신문> 4~5면 전체에 기념 제언이 실렸다.

신이치는 제언에서 먼저 '지방시대'를 외치게 된 배경을 논했다.

— 일본의 근대산업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다대한 부(富)를 낳았다. 하지만 그 반면에 소비문명화와 도시편중을 가져와 과밀, 과소현상이나 환경파괴가 심해지면서 지방의 전통문화는 표면적이고 획일적인 중앙문화에 종속되었다. 요컨대, 각지의 개성적인 생활양식과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의 다양성이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에 뿌리내리고 전통을 촉발하면서 신선한 생활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되살리자는 사람들의 소망이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서민의 일상생활을 즉(卽)하여 추진되는 우리의 운동은 그러한 소망을 함께 호흡하는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법즉세간(佛法卽世間)이고 학회즉사회(學會卽社會)이다. 사람들의 희구(希求)와 갈망에 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대의 창조'라는 종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기념제언에서 '지방시대와 창가학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한사람 한사람도 지역에 신뢰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고락(苦樂)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정신의 착실한 개척작업 속에서만 광포의 발전도, 지역의 참된 부흥도 있다.'고 외쳤다.

또 학회원은 벽지에서도 놀랄 만큼 광선유포를 향한 정열에 불타 즐겁게 활약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을 소중히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혜택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속에 솔선해서 들어가 대화하는 일'이 우리 간부가 해야 할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卽) '지방시대'를 앞장서 나아가는 일이며, 인간구제라는 불법(佛法)의 근본정신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길입니다."

이어서 환경문제를 논하면서 '거대산업에 따른 공해는 물론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듯, 외적인 환경 파괴는 어느 시대나 본원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세계의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논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근대과학이 진보하게 된 근원에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욕망, 다시 말해 인간 이기주의의 정당

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신이치는 인간의 그러한 자세가 한편으로는 각고(刻苦)와 노력, 도전 등의 힘이 되었고, 또 근대과학이 기아와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주도한 근대문명이 이기주의라는 내면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 바꿔 말하면 ‘내적인 환경파괴’에서 발생하는 한, 그 에너지는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의 정당화’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심각한 공해 등이 증명하듯 그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이미 파탄을 불러왔다. 그리고 동양의 발상(發想)인 자연중심의 공화주의(共和主義), 조화주의(調和主義)로 대체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동양의 영지인 불법(佛法)은, 모든 존재에 내제하는 고유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명은 자연환경을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정불이(依正不二)’로써 나타낸다. ‘의정불이’는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인 정보(正報)와 그 몸이 의처(依處)로 하는 환경인 의보(依報)가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라는 점을 설한 법리다.

요컨대 “‘정보’라는 ‘내면의 일념’을 변혁하면 필연적으로 ‘의보’라는 자연환경· 외부환경을 대하는 방식과 연동하

여, 그 방식에 변혁을 불러온다."는, 훌륭하게 내외(內外)가 호응하는 '공화, 조화를 위한 철리'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 지배· 복종의 일방통행이던 인간과 자연의 회로(回路)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근본으로 해야 비로소 상호간의 통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류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문화와 정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을 근저로 한다면 '자연에 대한 침략· 정복의 사상'에서 '공존의 사상'으로, 더 나아가 '일체관(一體觀)의 사상'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치는 전쟁을 비롯해 핵위협, 자연· 환경파괴, 가난, 기아 등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문제 하나하나를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렇기에 '불법(佛法)'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영지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할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류의 머리 위를 뒤덮는 파멸의 먹구름을 느끼면서 '서둘러야 한다'고 날마다 자신에게 말했다.

기념제언의 논술은 핵심으로 들어갔다.

— 신이치는, 바야흐로 세계는 일체화되고 있고 특히 자연· 환경파괴는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뛰어넘어 지구 전체

에 괴멸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각국의 영지를 결집해 지구적 규모로 인류가 살아남을 방책을 연구하고 토의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대화와 결정의 장(場)으로서 '환경유엔'을 창설하자고 제창했다.
또 근대과학의 기술을 구사해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선진국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요컨대 '남북문제'도 언급했다. 양자의 조화와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희생 위에 번영을 이룩한 선진국에는 특히 혹독한 시련을 자국에 부과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고 확대되는 인간의 욕망이 환경파괴를 초래한 대량소비문명을 만들어냈으므로 그 욕망을 한정하고 억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외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영지를 개발하는 철학, 그 중에서도 종교의 중요성을 외치는 바입니다.
'물질'에서 '마음'으로, 물질지상주의에서 생명지상주의로 — 어서에 씌어 있는 **'곳간의 재(財)보다도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도 마음의 재가 제일이로다'**(어서1173쪽)라는 가치관이 지금만큼 요청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착한다면 인류가 떠안은

커다란 문제도, 또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얽힌 실을 풀듯이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적인 파괴'가 '외적인 파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면, '내면의 조화'가 '외면의 조화'를 불러온다는 것도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이치의 외침이었다.

인류가 맞닥뜨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불법이라는 생명 근원의 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 수 있다.

신이치는 기념제언 마지막에 14~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르네상스운동을 논했다.

— 르네상스는, 모든 것에 군림하던 절대신(絶對神)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내린 획기적인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중세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해방을 주장했지만, 그 뒤에 온 것은 개인의 존엄과는 거리가 먼 '외적인 권위의 절대화'였다. 진보신앙, 제도신앙, 자본신앙, 과학신앙, 핵신앙 등 그 흐름은 수백년에 걸친다. 하지만 바야흐로 그 부작용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인간의 내면과 삶의 방식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나는, 앞으로의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종

교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적인 권위의 절대화에서 인간의 내적인 변혁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착실한 변화이지만, 제2의 르네상스라고도 해야 할 시대의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역은 '한 사람의 서민'이고, 그 투쟁은 자기자신의 인생전환(人生轉換)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있다고 밝히고 끝맺었다.

신이치는 21세기를 위해 불법의 법리를 사회와 세계에 널리 알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굳게, 강하게 결의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에서 **"일신(一身)의 안도(安堵)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四表)의 정밀(靜謐)을 기도해야 하느니라"**(어서 32쪽)라고 말씀하셨다. '사표의 정밀'이란 '사회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의미한다.

종교인이 인류적 과제를 외면하고 사회에 등을 돌린다면, 종교의 근본적인 사명인 '구제(救濟)'를 포기하는 일이 된다. 미쳐 날뛰는 현실사회 속에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비로소 참된 불법자(佛法者)이다.

또 신이치는 '혜택받지 못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솔선해서 들어가 대화하는 일' 이야말로 한 인간을 소중히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것이 즉(卽) 지방시대의 선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신이치는 행동으로 개시했다.

기념제언이 <세이쿄신문>에 실리고 이틀 뒤인 11월 21일, 신이치는 가나가와현 도쓰카문화회관에서 학회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도쓰카간부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22일에는 도쓰카문화회관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근행회를 여섯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신이치는 가나가와현의 대약진, 대승리를 바라며 온 힘을 다해 지도를 거듭했다. 새로운 역주(力走)가 개시되었다.

이날 22일에는 군마현에서도 대표간부회가 열려, 신이치가 작사한 군마현의 노래 '광포의 종'이 발표되었다.

열흘쯤 전에 군마현 간부들이 신이치에게 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현가(顯歌)를 작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간사이지도가 잡혀 있었고, 이어서 학회창립 48주년 기념행사도 기다리고 있었다. 군마현 간부는 '한참을 기다려야 가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쿄 아라카와문화회관에서 총회의 의의를 담아 본부간부회를 개최한 11월 18일, 간부회에 참석한 군마현 현장에게 가사가 도착했다.

신이치는 간사이에서 멤버를 지도하고 격려하는 격투 속

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사를 사색하고, 이날 퇴고해 완성했다.

신이치는 '동지를 위해서' 하고 필사적으로 임했다. 그 일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배가시킨다.

군마 동지는 참으로 빠른 신이치의 대응에 감동했다. 더욱이 학회 창립 기념일에 가사를 받은 만큼 기쁨은 더욱 컸다.

신이치는 군마의 노래 '광포의 종' 가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작곡도 의뢰하겠습니다. 곡을 다 만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전언을 덧붙였다.

군마 멤버는 일일천추(一日千秋) 같은 마음으로 노래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21일 저녁, 현간부들이 군마센터(훗날 다카사키평화회관)에 모여 12월 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

그곳에 전화벨이 울렸다. 신이치와 동행한 간부가 건 전화였다.

"군마의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테이프를 틀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전화를 받은 현간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수화기에서 노랫소리와 멜로디가 울려퍼졌다. 희망이 넘치는 힘찬 노래였다.

1. 우리를 지키고/ 바라보는
아카기산 바람은 / 묘법(妙法)과
군마의 천지에 / 행복 향기로워라
자 어깨동무하고 / 벗이여 일어서라

2. 문화가 가득한 / 군마에
지금 다시 / 광선(廣宣)이라는
금세의 꿈과 / 낙토를
자 구축하라 / 종을 울려라

3. 로망의 역사 / 가득하고
군마의 발자취 / 명랑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니 / 무지개 빛난다
아 우리의 맹세 / 잊지 않으리
도네와 하루나를 / 잊지 않으리

군마현의 노래는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군마의 출발을 알리는 노래였다.
간부들의 머릿속에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아름다운 향토의 천지가 연이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땅에서 투쟁하는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치의 마음이 느껴졌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가사와 곡에 귀를 기울이는 현간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군마센터에는 합창단 멤버가 연습하러 모여 있었다. 합창단 관계자가 현가(縣歌)인 '광포의 종' 녹음테이프를 듣고 악보를 만들어 곧바로 연습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 군마센터에 신이치의 전언이 도착했다.

"노래는 시대를 바꿉니다. 군마 동지가 이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면서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튿날 22일, 군마에서는 대표간부회가 개최되었다. 환희의 대합창이 장내를 압도했다.

군마의 노래 '광포의 종'을 작사함으로써, 신이치가 간토지방의 모든 현에 노래를 작사해 선사하게 되었다.

23일에는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창가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제1회 간토지부장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개회에 앞서 각 현의 멤버가 현의 노래를 합창해, 마치 '노래대회'를 방불케 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열창하는 지부장, 리듬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발랄하게 노래하는 지부부인부장, 모두 21세기라는 봉우리를 향한 결의를 담아 합창했다.

군마현 하루나호수와 하루나후지

이날 신이치는, 많은 불자(佛子)를 책임지는 지부의 중심자로서 광선유포의 중책을 맡아 날마다 분투하는 지부장· 지부부인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그 공로를 상찬했다.

"각자 일이나 가정일 등 고뇌와 격투하며 동지를 위해, 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의 사업을 궤도에 올리려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와중에 남자부 역직을 겸임하며 지구의 책임자나 지부간사, 지부장대리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회합에 갈 시간을 만들기조차 큰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이 신심의 기초를 세우고, 인생의 기반을 닦고, 불법의 리더로서 힘을 기르게 하고, 무량한 복운을 쌓게 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노고야말로 재산입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온갖 고뇌와 맞서 싸우면서도 많은 동지를 격려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광선유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각각의 고민, 괴로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심으로 고뇌를 극복하여 불법의 위대한 공력(功力)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 지

용보살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나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끝까지 투쟁하면 최고의 충실감으로 가득해집니다. 상쾌한 환희가 있습니다. 현실사회에서 자기자신에게 이기고, 광선유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불도수행입니다.

학회 초창기 초대 지부장과 초대 지부부인부장의 공적은 실로 큽니다. 그 실천은 지금도 많은 동지들 사이에서 회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포 제2장의 초대 지부장과 지부부인부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사람들을 위해 저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가!' '저토록 정열적으로 행동하는가!' '저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심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오래도록 회자되는 훌륭한 역사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일단 투쟁을 시작했다면, 대정열을 불태워 과감하게 투쟁합시다!'

광선유포를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그 껍질을 부수는 속에 경애가 크게 열립니다. 그것이 광포의 새로운 확대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부숴야 성장할 수 있고 힘도 커집니다. 반대로 큰 힘을 간직하고 있어도, 그 힘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면 힘은 점차 퇴화하고 맙니다."

"중도반단(中途半端: 시작한 일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중간

에 흐지부지 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전체 속에서, 좋은 것 속에서, 아름다운 것 속에서 결연히 살아가도록 마음을 쓰자.” — 이 말을 괴테의 잠언이다.

그리고 신이치는 활동을 추진하는 간부의 올바른 자세,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부에서 날마다 활동하면서 어서를 배독하는 전통을 만들어주십시오. 신심이 강성해질수록 모두가 교학을 구하게 됩니다. 신심을 깊게 하고 지속하려면 교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어서를 모두 함께 배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부장을 비롯한 장년부 간부는 부인부의 가정을 최대로 배려하고 마음을 써주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연세든 부모님을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을 잘 고려해 회합을 빨리 마치는 등으로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부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기 바랍니다. 지부장이 무엇이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인데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힘도 내지 못하고, 단결하지도 못합니다. 환희 넘치는 활동도 할 수 없

습니다. 지부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그 사람들의 보고· 연락만을 믿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활동을 추진할 때는 '지부도 지구도 언제나 협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신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간부는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가령 회원의 차를 얻어 탈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간부로서 실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얻어 타야 할 경우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예의를 갖춰 말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불도수행이고, 인간혁명을 할 수 있음을 알기바랍니다."

소사(小事)가 대사(大事)이다. 큰 사고는 대부분 세세한 일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작은 배려를 빠뜨려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고, 결국 조직이 정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세세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느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간토의 지부장· 지부부인부장의 새로운 출발을 즈음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사생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생활은 최대로 존중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누설되어서도 안 됩니다. 간부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준수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화(禍)는 입에서 나와서 몸을 망치며’(어서 1492쪽)라는 성훈도 있습니다. 간부 여러분의 경솔한 말 때문에 지부의 회원이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총명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강제적인 언동은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지부간부의 역할은 지부의 회원이 안심하고 신심에 힘쓰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많다보면 신심을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잘 주의해주십시오. 참된 학회원의 길을 걷지 않고, 광선유포를 위한 불자(佛子)의 모임인 학회 조직을 교란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빚는 사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까지 몇번이나 강조했지만, ‘8시 30분’ 회합종료를 엄수하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 여러분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락이나 보고할 때 전화는

간결하게 하는 등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바랍니다.
또 간부는 회원 댁에 밤늦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각 가정에도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맺고 끊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방심하고 기본에 소홀했을 때 사고가 난다. 광선유포는 마(魔)와 맞서 싸우는 공방전이므로, 마음이 느슨해지면 거기에 마가 틈탄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지부장· 지부부인부장에게 방심을 버리고 원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힘주어 강조했다.
지부는 학회의 중추가 되는 조직이다. 신이치는 그런 지부의 간부가 유감없이 힘을 발휘하고 광선유포를 생기발랄하게 지휘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활동을 추진하다가 난처한 일이 생기면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또 간부의 지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최고간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부의 회원들이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협의를 소중히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부장, 지부부부인부장, 청년부 등 모두의 합의를 얻어 활동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잘되지 않아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함께 창제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어서를 배독해 신심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을 모으자!' '단결하자!'는 신심의 일념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부간부라고 해도 연배도 다르고, 생각도 각양각색입니다.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을 맞춰 단결한다면 지역과 사회에 인간공화(人間共和)의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이치는 끝으로 "소중한 지부의 멤버 여러분을 부디 잘 부탁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십시오. 지부장· 지부부인부장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지부장· 지부부인부장이 진지해지면 지부는 바뀐다. 지부가 바뀌면 모든 동지는 환희와 공덕에 감싸이고, 광선유포의 개가가 울려 퍼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월 25일, 창가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실시된 지바현 지부간부회에 참석했다. 26일에는 도쿄 하치오지에서 교학부 초급등용시험 응시자와 채점관들을 격려하고, 27일과 28일에는 대학부 대표와 간담했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자는 마음으

로 필사적으로 시간을 만들고 행동했다.
그 속에서 학회가를 계속 작사해, 시즈오카현 동지에게 '시즈오카 건아의 노래'를 선사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29일 저녁에 현간부회가 개최되어, 합창단이 현가(縣歌)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1. 아 자랑스러운 / 후지산을
아침저녁으로 / 바라본다
지용의 우리도 후지산 같아라/
시즈오카 건아여 / 자 일어서라 / 자 일어서라

2. 아침 해 빛나는 / 이 대지
세계의 벗이 / 모인다
이 땅 낙토에 / 용감히 일어서라
시즈오카 건아여 / 지금 여기에 / 지금 여기에

3. 이 땅의 광포가 / 가득 넘치고
세기(世紀)의 공덕 / 구름처럼 솟아난다
열사의 뒤를 우리는 / 잇노라
시즈오카 건아여 / 자 춤춰라
시즈오카 건아여 / 자 춤춰라

신이치는 가사 첫머리에 '후지산'을 노래했다. 거기에는 '후지산처럼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당당한 신념의 사람이 되어라!' '후지산처럼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라!' '후지산처럼 자비의 팔을 벌려 모든 사람을 감싸안는 위대한 경애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시즈오카 동지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08년 11월, 신이치는 신시대 제1회 시즈오카현 청년부총회를 기념해 이 노래를 수정했다. 2절의 '세계의 벗이'를 '정의의 동지가'로, 3절의 '세기의 공덕'을 '사제(師弟)의 진열'로, 마지막 부분의 '자 춤춰라'를 '자 이겨라'로 바꾸고, 시즈오카 건아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시즈오카현간부회에서 '시즈오카 건아의 노래'를 발표한 11월 29일 저녁, 신이치는 비행기를 타고 도쿄에서 오사카를 향하고 있었다.

이타미공항(오사카국제공항)에서 오사카 도요나카시 간사이마키구치기념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승한 부회장이자 간사이총합장인 도와다 고이치가 결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간사이부인부장인 구리야마 미쓰코 씨 일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암선고를 받아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신이치는 병의 상태를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기념관에 도착하자마자 구리야마에게 편지를 썼다.

"암이라니 걱정입니다. 나도 강성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기나긴 인생이고 기나긴 법전(法戰)이므로, 온갖 장마(障魔)가 휘몰아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병마를 물리쳐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학회의 뜰에서 씩씩하게 다시 활약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잠시 사색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럴 시간을 어본존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편지를 다 쓰자 도와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구리야마 씨가 무리하면 안 되니, 간사이부인부장의 후임 인사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상의하면서 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했다.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면 피로가 쌓이거나 병에 걸리는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은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다.'고 설합니다.

그러므로 '신심이 약해서 병에 걸렸다.' '간부인데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뜻하게 감싸며 '지금까지 꿋꿋하게 열심히 달려왔으니, 마음 편히 요양하십시오. 건강해지면 다시 함께 활동합시다,'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가 평소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식생활에도 신경을 쓰면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병에 지지 않는다.'입니다. 이를테면 병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불행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걷지 못해도 행복을 만끽하며 생기발랄하게 사는 학회원을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실업자가 되거나 도산하는 등 많은 고뇌가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면서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컨대 '병에 진다.'는 것은 '그 현상에 분동되어 마음이 패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강한 마음으로 '이런 일로 질 성싶은가! 반드시 이겨내서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고야 말겠다!'는 사자(師子)와 같은 일념으로 강성하게 끝까지

기원해야 합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사자후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해를 할쏜가'(어서 1124쪽)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고난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불법의 위대한 공력(功力)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투병체험도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것으로 신심의 체험을 또 하나 쌓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불법의 힘을 보여줄 재산이 또 늘겠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전긍긍하지 말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일어서서 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구리야마 씨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도와다는 신이치의 진심과 기백에 압도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위대한 생명력을 용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병을 극복하는 근본입니다. 그 힘은 타인을 지키기 위해 꿋꿋이 살아갈 때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나 귀환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킨 어머니들'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늠름하게 끝가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광선유포라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병을 극복하겠다고 기원하면 지용보살의 생명이, 부처의 위대한 생명이 용현(涌現)하면서 넘쳐흐릅니다. 그럼으로써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신심을 해도 젊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부인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업(罪業)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위해 끝가지 살아간 사람에게는 삶을 멋지게 완전연소한 환희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과 행동은 인간으로서 존귀한 빛을 발하며 많은 동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병상에서도 병문안을 온 동지를 열심히 격려한 사람도 있습니다.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목을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용보살로서 인생을 완전히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금세에 죄장(罪障)을 모두 소멸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은 삼세(三世) 영원하므로, 내세에도 불타오르는 지용의 사명을 안고 지용의 불자(拂子)들이 늘어선 진열 속에 태어납니다.

광선유포의 대하와 함께 살아간다면, 병과 죽음으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세 영원히 황금빛으

로 찬연히 빛나는 장대한 행복의 바다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불이(不二)의 간사이 동지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정진(勇猛精進)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외쳤다.

"평안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 가슴속에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

간사이에 도착한 29일, 소카학원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는 늦은 밤까지 학원 관계자와 간사이소카초등학교 건설 등을 상의했다. 그리고 30일에는 오사카부 가타노시에 있는 소카여자학원(훗날 간사이소카학원)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협의했다.

오후 4시 전, 마쓰시타전기산업(훗날 파나소닉)의 고문(顧問)이 된 실업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를 학원에서 맞이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마쓰시타의 희망에 따라, 학원에서 대화하기로 했다.

신이치는 마쓰시타가 사흘 전에 여든네살 생일을 맞은 것을 축복하면서 네시간 가까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신이치는 마쓰시타를 배웅하고 나서 차를 타고 학원을 출발해 미에연수도량으로 이동했다. 밤 10시 넘어 도착한

신이치는 이곳에서도 주부(中部)의 수뇌간부에게서 보고를 듣고 향후 활동을 협의했다.

그리고 이튿날 12월 1일 오후 3시에는 미에현의 나바리시(市)로 갔다. 나바리시는 연수도량에서 차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미에현과 나라현 경계에 있다. 오사카와 나라의 베드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이다.

신이치가 미에현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나바리에서 현지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아침, 신이치는 연수도량을 산책하며 도미사카 요시후미 미에현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방문하는 나바리방면에서 내가 꼭 가정방문해야 할 곳은 없습니까?"

가치창조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서 시작된다.

"선생님이 꼭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실명될 위기를 멋지게 타고넘은 나바리본부의 다카오카 슈이치로 본부장입니다."

"아, 다치카와문화회관에서 격려하고, 올 봄에 미에연수도량에서 만난 분이군요. 건강해졌다니 다행입니다. 기쁘군요. 만나러 갑시다."

온 힘을 다해 격려한 사람에게서 괴로움을 극복했다는 보

고를 듣는 일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신이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오후 4시가 지나서 다카오카의 집에 도착했다. 가로수가 늘어선 길가에 새로 지은 2층 기와집이었다. 길 건너편에는 고등학교 운동장이 펼쳐져 있었다.

신이치가 간다고 미리 연락해놓았기에 다카오카와 아내 나오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류타가 일행을 맞이했다.

"드디어 나바리에 왔습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 류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눈이 나아 정말 잘 되었군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아팠다.

"실례지만 입을 좀 헹구었으면 합니다."

부엌으로 안내를 받은 신이치가 입을 헹구고 있자 부엌문 쪽에서 이쪽을 들여다보는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보였다.

"무슨 일이지요?"

"요 앞을 지나는데 다카오카 씨의 집에 어머니의 차가 있어서, 어머니가 와 계시나 해서요."

그 여고생의 어머니는 나오코에게서 신이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있었다.

"아마 어머니는 방에 계실 겁니다. 학생도 들어오세요."

불단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 근처에 사는 학회원 등 일고여덟명이 모여 있었다.
신이치는 함께 제목을 삼창한 뒤 "오늘은 좌담회를 엽시다. 누구든 좋으니 체험담을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다카오카가 가장 먼저 말문을 열었다.
둥근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기쁨을 음미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덕분에 시력을 멋지게 회복하고 10월에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몸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신심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본존의 힘을 생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법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공덕을 실감하면 저절로 환희가 솟아오르고, 그 체험을 말하고 싶어진다. 환희야말로 광선유포의 원동력이다.
다카오카 슈이치로의 오른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한 때는 1년 전인 1977년 10월, 감이 빨갛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이튿날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안과에서 2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대학병원 뇌신경외과를 소개받았다. 이때는 이미 오른쪽 눈에서 빛은 사라졌다.
뇌신경외과에서는 시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해가 바뀌고 3월, 왼쪽 눈에도 이상을 느꼈다. 대학병원에 가자, 곧바로 입원하라고 했다. 네시간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하니 부작용으로 온 몸이 부어올랐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이대로 영영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아침에 눈을 떠 빛을 느끼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매일이 그러한 반복이었다. 며칠 뒤, 의사가 다카오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의술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악화될 뿐,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카오카는 '이제 신심밖에 없다.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자'고 다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심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로 창제에 힘쓰자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공부한 교학과 어서에 비추어보면, 틀림없이 과거세에 악업을 많이 지은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리 대단하게 신심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어본존이 나쁘다는 듯이 생각했다. 오만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제죄(諸罪)는 상로(霜露)와 같이 법화경이라는 일륜(日輪)을 만나서 소멸되느니라"**(어서1439쪽)라고 말씀하셨다. 금생에서 신심

으로 죄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단언하셨다. 이 얼마나 고마운 불법(佛法)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어본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감사는 마음은 환희를 가져오고, 그러한 생명의 약동이 위대한 생명력을 용현시킨다.

다카오카는 진지하게 계속 창제했다. 불단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카오카는 신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숙명에 도전했다.

1978년 4월 초순, 다카오카는 미에현장인 도미사카 요시후미의 손에 이끌려 간부에게 지도를 받기 위해 다치카와문화회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신이치를 만났다.

"미에현 나바리에서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정을 들은 신이치는 대확신을 쏟듯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결코 병마(病魔) 따위에 지면 안 됩니다. 빨리 좋아져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나바리의 광선유포를 이루어야 할 존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이유도 병을 극복해 신심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이 만든 숙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겨내지 못할 숙명은 없습니다. 지용보살이 병마를 물리치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제목입니다. 어쨌든 훌륭한 실증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원해야 합니다. 나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에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카오카는 가슴속에 한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했다. 용기가 용솟음쳤다. 희망이 싹텄다. 강한 확신과 기원을 담아 진검승부의 창제를 계속했다.
'선생님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반드시 낫고야 말겠다!'
필사적으로 창제하는 사이에 의사도 가망이 없다며 포기한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오른쪽 눈은 아직 빛을 느끼지 못했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차츰 좋아져 어본존의 글자가 분명히 보였다. 다카오카는 **"대지를 가리켜서 빗나갈지라도, 허공을 동여매는 자는 있을지라도, 조수간만(潮水干滿)이 없는 일은 있을지라도, 해는 서쪽에서 돋을지라도,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어서 1351쪽)라는 어서를 되새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2일, 신이치는 이튿날 열리는 '미에문화합창제'에 참석하고자 미에연수도량을 방문했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에 와 있는 다카오카 슈이치로에게 말을 건넸다.
"그 뒤로 눈은 어떻습니까?"

다카오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예,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나서 진지하게 창제에 힘쓰자 열흘 정도 만에 <세이쿄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서의 글자도 보입니다. 날마다 시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하군요. 병을 고치는 근본의 힘은 자신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돕는 역할이 의학의 힘입니다. 신심을 근본으로 어디까지나 생명을 연마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합창제 이튿날에도 다카오카를 만났다.
"지금이야말로 제목을 끝까지 불러 훌륭하게 병을 극복하고, 신심에 대한 대확신을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신심은 어려움을 얼마나 이겨내고 공덕체험을 쌓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때는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미에연수도량에서 만난 지 일곱달 정도가 지났다.
자신의 집에서 신이치를 맞이한 다카오카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보고 했다.
"왼쪽 눈은 제목을 50만번 불렀을 때 시력이 0.5가 되고, 70만번을 부르니 0.7이 되더니, 100만번을 부르자 1.0이 되

었습니다. 오른쪽은 보이지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법의 힘을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굉장합니다. 석존에게서 불법을 듣고 환희용약한 제자들이 불법을 넓혔습니다. 당신도 지금 불법의 공력을 생명으로 느끼고 환희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환희를 공유하는 일이 광선유포의 투쟁입니다."

다카오카의 집에서는 이야기가 무르익었다. 이야기가 '나바리(名張)'의 지명에 이르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나바리'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名〉을 넓힌다〈張〉.' — 당당하게 '창가(創價)'의 이름을 내걸고 사회에서 신뢰와 승리를 쟁취하겠노라는 기개를 느낄 수 있는 지명입니다. '미에현에는 나바리가 있다'고, 그 이름을 주부와 전국에 떨칠 수 있는 광선유포의 모범이 되기 바랍니다."

또 고등부원에게도 말을 건넸다.

"열심히 공부해 소카대학교에 오세요. 21세기 리더를 육성하려고 창립한 대학입니다. 세계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띠고 태어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적으로도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많이 고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자세를 확립하는 토대가 됩니다. 청춘시절에 고생을 피하면 토대를 단단히 쌓을 수 없고, 인생이라는 건물도 견고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카오카의 큰딸 도시코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미네코가 웃으며 "학교 잘 다녀왔어요?"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이미 취직이 정해졌다는 고등학교 3학년인 도시코에게 '훌륭한 여자부 리더로'라고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색지(色紙)에 '다카오카 벚나무' '어머니 벚나무' 등을 휘호해 모인 멤버들에게 선사했다.

신이치가 돌아가려고 하자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부인부원과 현관에서 마주쳤다. 다카오카의 집에 신이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럼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신이치는 순간순간 만나는 벗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행동했다.

인간은 격려로써 성장한다.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작업이란 생명을, 지혜를, 힘을 쥐어짜내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발심하도록 양분을 주는 '진검승부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 일행은 다카오카의 집에서 나와 나바리의 대표들

과 협의회를 하기로 한 드라이브인(차에 탄 채로 들어가는 식당)으로 갔다. 드라이브인은 다카오카 슈이치로의 남동생 이쿠오가 운영하는 가게로, 차를 타고 5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협의회에는 현지대표뿐 아니라 방면과 현간부도 참석하기로 했다.

저녁시간이었으므로, 먼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향후 활동 등을 협의한 뒤, 신이치가 간담을 나누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주부는 지금 아이치, 미에, 기후 등 세 개 현이 단결해 크게 비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치는 도쿄, 오사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크게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화기애애하게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공덕을 받는 데 큰 장해가 되는 '원질(怨嫉)'에 말하고자 합니다.

신심을 해도 동지를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덕도, 복운도 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쁨도, 감격도, 생명의 약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해도 그 사람의 실상은 불행합니다.

그러한 사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학회의 세

계는 신심의 세계입니다. 신심에서 출발해 신심으로 끝납니다. 모든 일을 신심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심이란 무엇인가? '만물이 모두 자신의 생명에, 기심(己心)에 들어 있으며 자기자신이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당체(當體)이고, 부처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입니다. 대성인은 **'통틀어서 일대팔만(一代八萬)의 성교(聖教), 삼세시방(三世十方)의 제불보살도 나의 마음 밖에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지어다'**(어서 38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흉중(胸中)에 부처의 위대한 생명이 있다고 믿고, 오로지 창제에 힘써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 인생의 괴로움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 이것이 대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 자신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일희일우(一喜一憂)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생성불초(一生成佛抄)'의 **"불교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심성(心性)을 관(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생사를 출리(出離)할 수 없느니라. 만약 심외(心外)에 도(道)를 구하여 만행만선(萬行萬善)을 수행함은 비유컨대 빈궁(貧窮)한 사람이 일야(日夜)로 이웃의 재보(財寶)를 셀지라도 반전(半**

錢)의 득분(得分)도 없는 것과 같다"(어서 383쪽)는 어서말씀에 즉(卽)하면서 이야기했다.

"자신의 생명을 연마해 자기 흉중에 있는 불성을 용현하는 방법 외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경애'를 확립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묘호렌게쿄의 당체라고 믿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므로, 자신의 마음 밖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상황에 휘둘려 일희일우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나 위치, 경제력, 성격, 용모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낫다고 느끼면 우월감에 빠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칠 만큼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낙담하고 비굴해지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크게 상처를 입고 '이런 심한 말을 하다니.'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자비가 전혀 없다.'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든 관심을 끌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원질을 낳는 근본에는, 애써 신심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이 보탑(寶塔)이고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마

음 밖에서 행복을 좇는 '생명의 미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魔)가 틈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은 최고로 찬연한 부처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연마하면 됩니다.

또 자신이 부처이듯, 주위 사람도 둘도 없이 소중한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동지를 최고로 존경하고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가학회에서 말하는 단결의 극의(極意)입니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화경을 가진 자를 서로 헐뜯지 말지어다. 그 까닭은 법화경을 가진 자는 반드시 모두 부처이며, 부처를 헐뜯는다면 죄를 받는 것이니라"(어서 1382쪽)

더욱이 동지를 원질(怨嫉)하면 파화합승(破和合僧)이 되어 불의불칙(佛意佛勅)의 단체인 창가학회 조직에 균열을 만들고, 결국 광선유포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마(魔)의 작용이 된다.

신이치는 사랑하는 동지를 결코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원질을 엄하게 훈계하고자 했다.

"학회의 리더는 인격, 견식, 지도력 등도 뛰어나고 누구에게서나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당연

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범부이고, 인간혁명하는 도상(途上)이므로 말투가 공손하지 못한 사람이나 배려가 부족한 간부도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한다면 원질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고, 최고간부와도 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일 간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학회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하겠습니다.

또 리더의 단점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활동이 정체된 경우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리더를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심(己心)의 안'에서 법을 구하는 불법자(佛法者)의 자세입니다.

말법(末法)이라는 탁세(濁世)에 미완성인 인간이 모여서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으로 감정이 서로 부딪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바다'에서 거친 풍파에 시달려야 비로소 인간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울 때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창제에 도전하여 모든 일을

전진하는 힘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포처럼 맑고 기세 넘치는 신심을 관철해야 합니다."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이란 좀처럼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두가 단결하지 못해 지역의 광선유포가 지지부진한 조직이 있습니다. 몇몇 간부에게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는 등 많은 이유를 댑니다. 확실히 그렇게 지적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자기자신은 어떤가'라는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자신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게 책임이 있다. 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기심 밖'으로만 눈을 돌려, 대성인의 성훈과 학회의 지도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척도'로 만들고 맙니다.

본래, 불법의 가르침은 자기 삶의 척도로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착각하면 신심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답게 꿋꿋이 살아가면서 참된 신심을 관철하기 바랍니다.

불법자(佛法者)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자신과 대결'

하는 사람입니다. 아즉우주(我卽宇宙)이므로,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일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을 부르면 자신이 바뀝니다. 자신이 바뀌면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행· 창제라는 근본적인 실천을 절대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 근본이 대충대충 되어버리면, 모든 일이 헛바퀴를 돌게 되고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생명을 빛내면서 대승리, 소원만족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어디까지나 정열을 쏟아 말했다.
지도에는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 철저히 파내려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할 때까지 알기 쉽게 말하는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하다.

12월 2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에연수도량에서 열린 기후, 효고, 후쿠오카 세 개 현 합동대표간부회에 참석했다.
이 회합에는 간사이 간부도 참석했다. 이날 본부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간사이 부인부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간사이부인부장을 맡은 구리야마 미쓰코는 간사이총합부인부장이 되고, 후임으로 미노야마 마스에가 취임했다. 또 기후, 효고, 후쿠오카의 인사도 발표했다.

신이치는 신임간부들이 분투해주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간부로서 활동하는 의의를 다시금 확인했다.

“조직의 간부가 된 경우, 임명받고 첫 3개월이 승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활동이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경애혁명의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실천할 새로운 목표를 정해 전력질주하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후배들도 ‘간부는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투쟁하는구나.’라고, 새삼 느끼고 배웁니다. 그러면 조직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신임간부가 열심히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모두가 착각해 광선유포를 정체시키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업 등의 문제로 고뇌하고 고투하면서 조직에서 리더의 책임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인지 나는 잘 압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는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遺命)입니다. 그 광포를 추진하는 유일한 성업(聖業)이자, 사람들을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각성시켜 절대적 행복으로 이끄는 작업이 학회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간부가 되어 학회활동에 힘쓰는 일은 불법상에서 보면 사회의 어떠한 지위나 명예보다도 존귀한 일이고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이며, 민중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덕과 복운은 반드시 행복의 빛이 되어 자자손손까지 널리 비출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도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추인 간부로 정해진다.

학회는 이듬해인 1979년에 '일곱개의 종'이 모두 끝나고, 21세기를 향해 새롭게 비상(飛翔)하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간부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기후· 효고· 후쿠오카 세개 현 합동대표간부회에 이어, 미에현 쓰시에서 초창기 동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올바른 간부의 자세를 언급했다.

"오늘은 엄중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간부로서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간부는 조직의 꼭대기에 올라앉아 호령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원을 철저히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 격려하고 지도했느냐가 간부의 실적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후배는 일어선다.' —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공감해야 단결도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와 결합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서로 오가는 속에 따뜻한 인간주의 조직으로 소생하는 법입니다.

오키나와의 어느 부인부 간부는 '다리가 철판처럼 뻣뻣해질 정도로 걷겠다'는 각오로 가정방문에 철저히 도전해, 이상적인 광포의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도쿄의 시타마치(下町) 어느 권장은 날마다 <세이쿄신문> 배달원과 함께 자신의 권내에 있는 학회원 댁을 돌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 분,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분에게는 격려의 메모를 남겨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개인지도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커다란 신뢰를 쟁취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마음이 맺어질 때 힘이 생기고, 광선유포의 수레바퀴는 크게 회전한다.

'간부'라는 것은 본래 나무의 줄기이고, 중심을 이루는 존재이다. '간부'가 썩거나 약하면, 나무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학회간부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일부러 상세하게 말했다.

“간부는 모두에게 신심의 양분을 끊임없이 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신심 강성한 선배를 구도해 절차탁마하면서 언제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속에 충실감도, 희망도 솟아오르고 삶의 보람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선배간부라도 광선유포의 사명감도, 정열도 부족해 걸핏하면 조직을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다가 거기에 동조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자신도 청신한 신심의 숨결을 잃고 타락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를 몇번이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간부의 반사회적인 행위나 조직 이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간부가 그런 행위를 하면 수많은 학회원이 고통을 받고, 광선유포는 크게 늦어지고 맙니다.

만일 그러한 간부와 친한 사이라고 해도, 결코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회는 ‘악은 악’이라고 날카롭게 간파하고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불법이 설하는 ‘생명의 인과법칙(因果法則)’은 인간의 규범, 도덕을 이루는 근본이다. 부정(不正)과 악사(惡事)를 저지르고 남의 눈까지 속였다고 해도, 불법의 인과이법(因果理

法)을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나쁜 일이나 착한 일이라도 모두 과보(果報)가 되어 자기자신에게 돌아온다. 니치렌 대성인은 "**악인(惡人)이 있으면 악과(惡果)를 느끼고 선인(善因)이 있으면 선과(善果)를 느끼며**"(어서 768쪽)라고 말씀하셨다.

이 법칙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존재가 불법자(佛法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를 관철하는 고결한 인격의 사람이어야 한다.

12월 3일, 미에연수도량에서 열린 전국현장회의에서 이듬해 '인재육성의 해'의 구체적인 활동을 협의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사이총합부인부장이 된 구리야마 미쓰코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지금까지 편지 등으로 꾸준히 격려했지만 더욱 힘을 북돋아주고 싶었다.

이날 밤, 신이치가 아내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구리야마 씨가 입원해서 암수술을 받는다는데, 분명 쓸쓸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구리야마 씨는 여자부 시절부터 간사이의 중심자로서 분발하고, 지금까지 쭉 간사이광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람이오. 반드시 이겨 낼 것이오. 먼저 '끝까지 투쟁한 당신을 어본존이, 제천선신이 지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성실히 치료에 전념하기 바랍니다.'라고

전해주시오.

하지만 구리야마 씨는 분명 '모두들 필사적으로 활동하는데, 나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다니 죄송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 이렇게도 전해주시오.

'각 현의 부인부장은 모두 바빠서 충분히 창제할 시간이 없으니, 당신이 다른 사람들 몫까지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 돌아오십시오. 우리 부부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튿날 4일은 신이치 일행이 미에를 출발해 고치로 가는 날이었다. 신이치는 현장회의에 참석한 멤버를 비롯해 현지 멤버인 하쿠산의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사람들을 격려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구리야마가 미네코에게 인사하러 찾아왔다.

"오늘 오사카로 돌아가 입원합니다."

미네코는 신이치의 말을 전하고 "반드시 괜찮을 거예요"라고 격려하고 굳게 악수를 나눴다.

구리야마는 신이치가 걱정한 대로 '중요한 때에 광선유포의 진열에서 떠나야 하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마음이 울적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몫까지 제목을'이라는 말에 구제받은 느낌이었다. 용기가 솟아올랐다.

격려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깊이 생각하고, 무슨 일로 고뇌하는지를 찾아내어 희망의 빛을 보내는 작업이다.
구리야마의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연말에 퇴원해 새해가 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기차게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동지를 격려하게 된다.

12월 4일, 미에연수도량에서 미네코와 함께 차를 타고 나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열차로 갈아타고 오사카에 갔다. 그리고 이타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치현으로 가기로 했다.
이날 미에는 날씨가 흐렸지만 오사카에 들어서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고치에도 비가 온다고 했다.
비행기는 조금 늦게 이타미공항을 이륙했다. 고치공항은 비 때문에 시야가 나빠 잠시 상공을 돌았다. 만일 착륙하지 못하면 이타미공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다.
신이치 일행을 맞이하려고 고치공항에 와 있던 시마데라 요시노리 일행은 비가 내리는 잿빛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신이치는 1월과 7월에 이어 이해 세번째로 시코쿠를 방문하는 터였다. 하지만 고치에는 6년 반 만이었다. 그런 만

큼 시마데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마모토 선생님을 고치에 모셔야 한다.'며 필사적이었다.
일행이 탄 비행기가 고치 상공을 빙빙 돌다가 결국 오후 4시 반에 고앙에 착륙했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했지만, 승객 모두 크게 기뻐했다.
신이치는 고마운 마음에 기장에게 시를 지어 선사했다.

"악천(惡天)에 / 비행 조종/ 훌륭하다
기장의 솜씨를/ 승객 모두 칭찬하노라"

신이치는 훌륭한 그 분투를 상찬하고 싶은 뜻을 꼭 전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고마움을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겠는가.
신이치가 공항 출구에 나타났다. 시마데라가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하고 외쳤다.
신이치는 웃으며 손을 들어 응했다.
"고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본부 직원인 시마데라는 2년 전 12월에 고치현장으로 파견되었다. 도쿄 니혼바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마데라가 서른다섯살에 처음으로 타향살이를 하게 된 곳이 고치였다.

현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시마데라는 아무런 망설임도, 미혹도 없었다. 왜냐하면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자!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광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자!'고 정했기 때문이었다.

시마데라뿐 아니라 당시 각현의 현장 등을 맡은 청년간부 대부분이 똑같은 심정이었다. 모두 청년부원으로서 야마모토 신이티에게 훈도받고 '내 인생은 광포를 위해 있다.' '생애 학회와 함께'라고 정하고 힘을 연마하고 길렀다. 그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들어도 동요도, 불안도, 불만도 없었다. 흔쾌히 "예" 하고 대답하고는 그곳을 자기 사명의 무대로 정하고, 젊은 독수리처럼 이곳 저곳으로 기뻐하며 씩씩하게 날아갔다.

물론,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모두 평소에 후계의 청년부로서 광선유포를 모두 책임지자고 각오한 터였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광포 제2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광선유포의 바통을 이어받을 청년들은 어떠한 시대가 되더라도 이 의기(意氣)를 잊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사정만 주장하고 이기주의에 매몰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자신의 경애를 향상시킬 수도 없다. 또 광선유포를 가속시킬 수도, 사회에 공헌할 수도 없다. 커다란 이상을 안고 살아가자고 할 때야말로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깨고 경애를 열 수 있는 법이다.

전쟁 전에 발표한 '창가교육학회(創價教育學會) 강령'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본회(本會)는 다른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세계관에 근거하는 개인주의의 이기적 모임이 아니며, 자기를 잊고 공관(空觀)하는 원시안적 세계관에 입각하는 허위의 전체주의 모임도 아니다."

광포를 목표로 하는 속에 개인의 행복도 있으며, 자타 함께 행복을 위해 광포로 달려야 한다.

고치는 일본 근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킨 인재의 천지이다. 또 광선유포의 역사에서 볼 때도 고치에는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구습 속에서 날마다 절복· 홍교를 위해 달리며 가시밭길을 개척해온 '선구로 빛나는' 민중혁명의 궤적이 있다.

시마데라는 학창 시절에 고치를 방문한 뒤로 고치현을 깊이 동경하게 되었다.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웅대한 태평양, 맑게 흐르는 아름다운 시만토강, 우뚝 솟은 푸른 산들,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비롯한 근대 일본의 새벽을 연 뛰어난 인재들. 또 '완강하다'고 할 정도로 신념을 굽히지 않는 고치현 사람들의 기질 — 이 모든 것에 매력을 느꼈다.

시마데라가 고치현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신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젊은 간부가 전혀 모르는 곳에 현장(縣長)으로 가는 것이니 '내가 현장이다.'라는 식으로 으스대면 안 됩니다. 고치의 간부들은 몇십년이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고, 나이로도 선배입니다. '가르쳐주십시오.'라는 자세로 겸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해 역직· 지위가 높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양 착각해 으스대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싶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사람 한사람과 유대를 맺는 일입니다. 회원 댁을 한집 한집 돌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이나 젊은 장년을 육성해, 차대를 이을 인재의 흐름도 만들어야 합니다.

장래 중핵이 될 멤버를 10명이나 20명 정도 모아 어서강의나 연수회를 해도 좋겠지요. 어쨌든 뒤를 이을 사람들에게는 신심의 기본, 간부의 기본자세를 단단히 가르치고, 창가(創價)의 마음과 학회정신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체든 '기본'과 '정신'의 계승은 '영속'과 '발전'의 생명선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시대에 적응한 지혜를

계속 발휘한다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다.

시마데라 요시노리의 고치현장 취임과 동시에 현부인부장도 30대인 사이키 후지코가 취임했다. 젊은 중심자 두 사람이 고치광포의 차축이 되어 전진하게 되었다.

시마데라는 고치현 전 지역을 돌았다.

마을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신심을 꿋꿋이 관철해,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을 학회의 이해자로 만든 수많은 초창기 동지가 있었다. 갖은 병고와 생활고를 신심으로 타고 넘어 커다란 신뢰를 쟁취한 '실증을 나타낸 사람'도 곳곳에 있었다. 모두 넘치는 대확신과 창가학회원이라는 최고의 긍지를 안고, 오로지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시마데라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머리가 숙여졌다.

일찍이 고치에서는 초창기 중심 간부가 불상사를 일으키다 결국 퇴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때문인지 개중에는 "간부는 믿을 수 없다. 내 조직은 내가 지킨다."고 말하는 초창기 간부도 있었다. 시마데라가 그 지역의 회원 댁을 가정방문하자 '멋대로 찾아가면 곤란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시마데라는 할 말을 잃었다. 간부에 대한 신뢰가 한번 무너져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좋다, 회원들을 위해 최고로 성실하고 끈기 있게 꿋꿋이 힘쓰자!'

고치에서 자란 물리학자이자 수필가인 데라다 도라히코가 이렇게 말했다.

"실제 사례의 힘은 온갖 언사(言辭)보다 강하다."

신이치는 시마데라를 염려해 현장회의 등에서 시마데라를 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야기할 때는 활동만 말하지 말고, 신심의 환희와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副)역직자를 소중히 하십시오. 부역직자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면 광선유포는 가속도가 붙어 크게 전진합니다. 중심자가 먼저 부역직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 신의와 우정을 맺어야 합니다. 강한 조직이란, 부역직자가 즐겁게 활약하는 조직입니다."

시마데라는 신이치의 지도대로 실천했다.

1977년 7월, 고치 동지가 염원하던 고치문화회관(훗날 고치평화회관)을 고치 시내에 완공했다. 게다가 그해 12월에는 고치연수도량이 도사시미즈시(市)에 개원했다.

이 무렵, 고치현 창가학회는 큰 전진의 발자취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마데라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고치에 방문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신이치는, 새로운 현장과 현부인부장을 도와 함께 투쟁한 공로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고치에서도 종문 승려들은 회원들을 학회와 등지게 하여 사찰의 단도(檀徒)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학회를 비방하고 중상했다. 그러한 속에서 이를 악물고 창가의 정의를 끝까지 외치며 학회원을 꿋꿋이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신이치 일행은 오후 5시 반에 고치문화회관에 도착했다. 일대는 땅거미가 깔려 어둑했다.

문화회관은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로 고치시 중심부를 흐르는 가가미가와강 바로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날 저녁, 신이치가 가장 먼저 참석한 회합은 초창기 공로자 대표 150명이 모인 간담회였다. 반가운 얼굴이 많았다. 눈바람을 견디며 광선유포의 험난한 길을 헤치고 나아간 용자들은 이미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희끗희끗했으며, 이마에는 주름이 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환희와 구도(求道) 그리고 투혼에 불타 빛났다.

고치가 낳은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 마키노 도미타로는 "내 모습이 비록 노인으로 보여도 마음은 늘 꽃다운 황금기"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고치에 와서 기쁘다고 말하고, 멤버들을 끌어안는 듯한 심정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호적상의 나이'와 '생명의 나이'는 다릅니다. 마음이 젊으면 '생명의 나이'는 청년입니다. 영원히 즐거운 광포여행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힘내서 고치현 창가학회를 일본 최고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신이치는 참석자들의 근황에 귀를 기울이고 피아노를 연주해 격려한 뒤,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날 저녁, 신이치는 고치의 현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치 동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날 생각입니다."

이튿날 12월 5일, 날씨가 전날과는 완전히 바뀌어 남국의 도사(옛 고치현 이름)답게 쾌청했다.

이날 고치문화회관에서 낮에는 고치지부 결성 22주년 기념간부회가, 저녁에는 회관 개관 1주년 기념간부회가 잡혀 있었다.

참석자가 오전부터 문화회관에 모여왔다. 정오가 지나자 신이치는 2층 로비로 나와 참석자를 격려했다. 회관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간부회 참석자뿐 아니라 신이치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라도 만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신이치는 고치문화회관에서 나와 회관 앞에 흐르는 가가미가와강 강둑을 걸으며, 회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잇따라 말을

건네고 악수를 나누며 함께 기념촬영을 거듭했다. 회관 근처에서 학회원이 운영하는 찻집과 잡화점에도 들렀다.

회관에서 여는 기념행사를 축하해 떡치기를 하는 멤버에게도 다가가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신이치는 이렇게 굳게 결심했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대인 말법에 누가 광선유포를 추진할 것인가. 이 분들밖에 없다. 학회원은 자신의 숙업과 악전고투하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다. 그야말로 위대한 사명을 안고 출현한 지용보살이고, 존귀한 불자(佛者)이다. 나는 한 순간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혼을 쏟아붓고, 합장하는 마음으로 힘껏 격려하자. 장마(障魔)에 져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

성훈에는 **"나무를 심는 데는 대풍(大風)이 불어도 강한 지주(支柱)를 세우면 넘어지지 않으나"**(어서 1468쪽)라고 씌어 있다. 격려는 용기가 되고 힘을 낳는다.

고치지부 결성 22주년을 기념하는 간부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신이치는 고치현 창가학회의 흥륭과 동지의 행복을 기원하며 엄숙히 근행한 뒤, 모두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자고 제안했다. 종문 승려들의 비열한 처사를 꿋꿋하게 견디며

과감히 투쟁한 소중한 동지를 진심으로 찬탄하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와 미네코는 이번 고치방문을 기념해 꽃다발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 진심에 깊이 감사하고, 양해를 얻어 그 꽃다발을 장년부와 부인부의 고령자 대표에게 선사했다. 꽃을 받은 부인부 대표는 아키군 도요초에서 차로 세시간 걸려 참석했는데, 고치현 최동단 지역인 도요초는 고치현과 도쿠시마현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신이치와 처음 만나는 터라, 모두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신이치는 그 긴장감을 풀려고 직접 사회를 보면서 현간부들을 지명해 인사를 시켰다. 생각지도 못한 사태에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하는 모습에 폭소가 터졌고, 경직된 분위기가 단숨에 풀어졌다.
각부 합창단의 상쾌한 합창과 기념품 증정이 있은 뒤, 마이크 앞에 선 신이치는 '6년 반 만에 왔지만, 언제나 고치의 벗을 생각하며 부부가 함께 제목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힘주어 이렇게 강조했다.
"광선유포는 현실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개척하며 나아가는 기나긴 원정입니다. 그 앞길에는 불황 등 생활을 압박하는 온갖 거센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면에서도 장기적인 전망을 명확히 세우고, 특히 눈앞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불법(佛法)은 도리(道理)입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생활설계가 어중간하고 일상생활의 리듬도 문란하면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두 ‘신심즉생활(信心卽生活)’입니다. 눈앞의 한걸음을 소중히 하면서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표로, 강성한 신심을 관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에 나오는 “보현이여, 만약 후세에 이 경전을 수지(受持)독송(讀誦)하는, 이 사람은 또 의복· 와구(臥具)· 음식· 자생(資生)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할지라도 소원이 헛되지 않으며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얻으리라”(법화경 676쪽)라는 글을 인용해 지도했다.

“이 경문은 ‘말법에 어본존을 수지하고 신심을 관철한 사람은 물욕(物欲)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소원만족의 경애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심을 관철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래 용기는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신, 고생을 회피하려는 자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자신, 나쁜 일이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자신이라는 ‘자신의 미혹· 껍질을 타파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행복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고치 여러분은 자신을 이기는, 용기 있는 신심을 하는 사람이기 바랍니다."
고치지부 결성 22주년을 기념하는 간부회는 기쁨에 넘치는 속에 막을 내렸다.
신이치는 쉴 틈도 없이 회관 안을 돌며 격려하고, 옥상에 마련한 다과회에도 모습을 나타내 참석자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곳에서 치과의사이자 현부부인장인 가시키 사치코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자부인 아들, 여자부인 딸과 간담했다.
사치코는 1958년 1월에 입회했다. 근행을 시작했지만, 학회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이듬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아들은 아홉살, 딸은 다섯살이었다. 망연자실했다. 자신의 숙업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시련의 거센 파도에 지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 인생에는 역시 복운이 중요하다. 이 신심에 힘쓰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숙명도 전환하고, 복운도 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 본격적으로 신심을 해보자!'
사치코는 결의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온 힘을 다해 학회활동에 힘썼다.
사치코는 집을 회합장소로 제공했다. 사치코가 사는 고치

현 서부의 구보카와초(지금의 시만토초 일부)는 고치와 도사시미즈, 스쿠모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사람들이 비교적 모이기 쉬운 장소였다. 그렇다 해도 도사시미즈에서 구보카와초까지 오려면 열차를 갈아타고 네시간 정도 걸렸다.

초창기였으므로 차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차를 놓쳐 사치코의 집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치코는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대했다. 모두 사치코의 집을 '사치코호텔'이라고 불렀다.

치과의사로 일하며 학회활동에 도전하는 사치코를 뒤에서 묵묵히 지킨 사람이 어머니 후지였다. 후지도 홍교에 정열을 불태워, 학회원의 오토바이에 뒷자리에 타고 이곳 저곳으로 벗을 위해 달렸다.

신이치는 고치문화회관 옥상에 마련한 다과회에서 사치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도전하셨군요. 지역의 동지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학회활동에 힘쓸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지켜주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머니를 소중히 하십시오. 인간은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힘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법자

(佛法者)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원들을 격려할 때도 그 분을 응원하고 협조해주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모노를 입은 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기모노가 잘 어울리십니다.
가족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은 따님과 손주를 지키고 구보카와 발전에 힘이 된 할머님이십니다. 정말이지 가문의 회장입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신이치는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며 사치코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타인에 대한 감사와 배려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새로운 전진의 활력이 된다.
신이치는 이어서 오후 4시부터 학회원이 운영하는 고치 시내의 찻집에서 여자부 본부장(한국의 지역여자부장) 20여명과 간담하고 오후 6시가 지나서는 고치문화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근행회에 참석했다.
이튿날 6일은 도사시미즈시에 있는 고치연수도량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신이치는 일단 근행회에 참석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나는 모든 근행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회원 여러분을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고치현장 시마데라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그러나 '선생님은 전력질주 하듯 격려를 이어가고 계시다. 오히려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마데라의 마음을 괴롭혔다.

오후 2시부터 근행회를 시작했다. 신이치는 경문과 어서를 배독하고 어본존의 무량무변한 공덕의 힘을 말했다.

말법의 어본불(御本佛)이신 니치렌 대성인이 일체중생을 위해 우주와 생명의 근본법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連華經)를 만다라(曼荼羅)로 구현하신 것이 어본존(御本尊)이다.

대성인은 1273년 4월 사도유죄(左渡流罪) 때 쓰신 '관심본존초(觀心本尊抄)'에서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의 본존이 이 나라에 서느니라"**(어서 254쪽)라고 선언하셨다. 창가학회는 어본존에 대한 절대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광선유포를 추진했다.

신이치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광대무변한 공덕을 갖춘 어본존에게 나무(南無)하는 강한 신력(信力)·행력(行力)으로 어본존에게 갖춰진 불력(佛力)·법력(法力)을 이끌어내 큰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큰 복운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친 신심을 관철

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공덕체험을 쌓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본존을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신심의 환희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사회에 그 공덕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광선유포에 한층 더 속도가 붙습니다."

공덕이 넘치는 곳에 환희와 확신이 넘치고, 홍교의 물결이 퍼진다.

신이치는 근행회에서 공덕을 받는 중요성을 말하고, 끝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물과 같은 신심'과 '단결의 고치', 더 나아가 '공덕의 고치'가 되어 멋진 낙토를 구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의 지도를 마치겠습니다."

'물과 같은 신심'과 '단결의 고치' — 이 말은 1972년 6월 20일, 고치에서 기념촬영회를 하면서 신이치가 제시한 지침이다.

고치현 사람들의 특성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러한 기질은 단기 결전에는 장점이지만, 일생성불(一生成佛)을 목표로 신심을 관철하는 데는 단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이치는 일시적으로 불타올랐다가 금방 꺼지고 마는 '불과 같은 신심'이 아닌, 생애 구도하는 자세를 지속하고 강물이 흐르는 듯한 '물과 같은 신심'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치현 남성은 '완강하다'고 할 만큼 기개가 있으며, 혁신적이고 반권력적인 경향이 강하다. 한편 여성은 '완고하다.'고 하는데, 시원시원하고 승부욕이 강하다고 한다. 결국 남녀 모두 자기 의견을 쉽게 굽히지 않는 기질이 있는데, 그것은 단결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했다. 고치광포를 추진하는 열쇠는 '완강한 남성'도 '완고한 여성'도 모두 힘을 합하여 철저히 이체동심(異體同心)의 신심에 힘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단결의 고치'를 만들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두가지 지침에 '공덕의 고치'를 덧붙였다.

물과 같은 신심을 관철하며 서로 단결하여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이유는, 각자가 공덕의 꽃을 피워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모두 함께 공덕을 받자는 마음으로 신심에 힘쓰는 조직에는 기쁨이 있고, 따스한 인간성의 온기가 있다. 또 공덕의 체험은 금강불괴(金剛不壞)와 같은 신심을 구축하는 골격이 된다.

이 세가지 지침은 고치현의 영원한 3지침으로 동지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후 3시가 넘어 고치역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도사시미즈시에 있는 고치연수도량에 갔다.

차창 밖으로 나지막한 산들이 이어져 있었다. 달력으로는 이미 겨울인데도 아름다운 신록으로 빛나는 산등성들이 '남쪽의 도사(土佐: 고치현)'를 느끼게 했다.

열차가 스사키를 지나자 푸른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바로 산골짜기로 다시 들어갔다. 짧은 터널을 몇개나 지나 오후 5시 전, 도사본선 종점인 구보카와역에 정차했다. 열차가 그대로 나카무라선으로 옮겨 40분 정도 더 달린 뒤, 종점인 나카무라역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저녁이 되었다.

여기서부터는 차로 이동하는데, 아직 한시간 반 정도 더 걸린다고 했다.

자동차 전조등이 길 양쪽으로 우거진 나무들을 비췄다. 동승한 부회장이자 시코쿠총합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신이치가 물었다.

"첩첩산중이군요. 초창기 동지들은 어떻게 학회활동을 했습니까?"

"예, 1960년대 초에는 나카무라 부근에서 에히메현 경계에 있는 니시토사무라의 구치야나이와 오쿠야나이까지 항상 자전거로 다녔다는 지구부장도 있습니다. 회원 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새벽을 맞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면 반가워하는 동지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추억인 듯 했습니다."

신이치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심의 세계는 불가사의합니다. 고생할수록 최고의 추억이 됩니다. 고생을 모두 보답받기 때문입니다. 벗을 계속해서 찾아가 진심으로 격려하고 발심하기를 기원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 반드시 일어설 때가 옵니다.

또 만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대를 위해 힘쓴 만큼 모두 자신의 공덕과 복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신심의 세계입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노력 그 자체가 승리이다."라고 말했다.

고치연수도량에서는 현지 간부들이 신이치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먼 곳까지 정말로 야마모토 선생님이 와주시는 것인가….'

간부들은 신이치가 나카무라역에서 차를 타고 연수도량으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다.

연수도량이 있는 도사시미즈시를 비롯한 하타지역에서도 많은 회원이 종문 승려의 무도한 처사를 참아야 했다. 동지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신이치의 연수도량 방문을 목

표로 서로 격려하며 전진했다.

오후 7시가 지났을 무렵, 달려오는 전조등 불빛이 보이더니 자동차 몇 대가 연수도량에 도착했다.

"이야! 참, 정말 멀군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모로 신세를 지겠습니다!"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왔으니, 안심하십시오. 함께 새롭게 출발합시다."

신이치의 말을 듣고, 현지간부는 기쁨에 가슴이 뜨거워져 말을 잇지 못했다.

현관 옆에는 분홍색 꽃이 핀 동백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신이치는 그 나무를 보자 이렇게 제안했다.

"아름답게 피었군요. 정원을 가꾼 분의 진심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곳을 '동백꽃정원'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애써 심었으니, 고령인 공로자 중에서 열명을 뽑아 그분들의 이름을 각각의 나무에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이름을 써서 공로를 기립시다. 분한 눈물을 삼키며 온 힘을 다해 광포의 길을 열심히 개척한 용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시코쿠와 고치의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부는 회원을 철저히 격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광선유포를 위해 고생하고 애쓴 분들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공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에 도착하자마자, 사자분신(師子奮迅)의 기세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에는 방면간부를 비롯해 고치현 간부들과 간담했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의 주변상황 등을 묻고, 시마데라 현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부터 연수도량에서 실시하는 근행회에는 고치현 서부뿐 아니라 에히메현에서 난요의 대표도 참석하는군요. 많은 사람이 오니, 도로도 복잡해지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소방서나 파출소, 어업협동조합 등에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연수도량이든 회관이든, 이용하는 데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인사하러 가야 합니다. 사전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리고, 한마디 양해를 구해 놓으면 안심하는 법입니다.
이웃 주민들이 '학회 회관이 생겨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불법즉사회(佛法卽社會)이므로, 주위 사람들이 '학회 회관이 생겨 잘 되었다. 지역도 발전하고 안심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신이치는 하타지역에 있는 종문 사찰에 '연수도량에 와 있습니다. 언제 신세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전언과 함께 선물을 보내도록 부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끊임없이 분투하는 신이치를 직접 보고는, 그의 건강이 염려스러웠다. 신이치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검승부(眞劍勝負)입니다.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두번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도록 하타지역의, 그리고 고치의 미래를 위해 모든 포석을 놓고 싶습니다. 결국 투쟁도, 인생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12월 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치연수도량에서 여명(黎明)의 바다를 보았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 어둠을 가르고 빛줄기가 쏟아졌다. 태평양으로 뻗어 있는 아시즈리반도의 능선이 보였다. 바다에는 수많은 황금물결이 춤추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아시즈리반도 해돋이는 대자연의 장엄한 드라마였다.

신이치는 훗날 이때 느낀 감동을 시로 읊었다.

전순(轉瞬: 눈 깜빡할 정도의 짧은 시간) —
만반의 준비를 한 / 광채가 폭발한다
무수한 황금 화살을 쏘며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화구(火球)가 뛰어오르듯
일륜(日輪)은
순식간에 / 넓은 바다를
금빛 은빛으로 물들인다
이상의 공간을
불타는 듯한 광택으로
보석으로 / 장식한다

오
대자연의 장대한 연출
아무리 / 인간이 뛰어남을 다하더라도
도저히 견줄 수 없다
위대한 / 생명력의 드라마
고치연수도량에서 바라보는
저 아시즈리 해돋이가

나는 / 나는 제일 좋다
일본 제일의
‘아침 8시의 태양’이다

신이치에게는 아시즈리반도에 떠오르는 아침 해가 광선유포의 하늘로 뛰어나온 창가학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이 느껴졌다.
학회에 편견을 가지고 그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신도(信徒)를 지배하려는 종문 승려들에게서 학회가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위풍도 당당히 오늘도 사명의 궤도를 유연히 나아간다.
철인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다.
“하늘도 어두워질 만큼 쏜 화살이 한 자루라도 태양을 맞췄는가?”

7일, 고치연수도량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기념근행회가 오후 1시부터 열렸다. 신이치는 어서를 배독하고 ‘불법은 죽음의 문제를 해명한 위대한 철리’라는 점과 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담아 강조했다.
근행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를 위로하려고 피아노도 연주했다. 또 스태프로서 회합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청년부

대표들에게 ‘입대(立大)’ ‘광우(光友)’ 등의 휘호를 색지에 적어 증정했다.

신이치가 귀로에 오르는 참석자들의 버스를 배웅하고 멤버 몇 사람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마데라 현장이 더블정장을 입은 백발의 남성을 소개했다.

“구로야마 요시지 씨입니다. 연수도량을 정비하는 데 애써 주셨고, 능수매화나무와 동백나무, 벚나무 등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신이치는 구로야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구로야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줄곧 만나 뵙고 싶어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뵈니 기쁩니다.”

“내가 오히려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부인과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에 댁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 집은 멧돼지 우리 같아서요.”

“멧돼지우리라도 어본존 안치는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댁이 상적광토(常寂光土)이고, 대궁전입니다”

“그렇군요.”

밝은 웃음이 번졌다.

구로야마가 기증한 나무들을 심은 곳을 구로야마의 이름을 따서 ‘구로야마정원’이라고 명명했다. 이듬해 신이치는 자신이 쓴 《잊지 못할 만남》이 발간되자, 책에 시를 써서 선사했다.

“멧돼지우리를 / 잊지 않으리 / 불이(不二)의 여행”

동지의 정성에 진심을 다해 응하는 속에 창가의 혼으로 맺어진 연대가 구축되는 법이다.

7일 저녁, 신이치는 고치연수도량 주변을 시찰하러 나가 아시즈리해양관을 방문했다.

1970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해중공원(훗날 해역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근은 바다의 투명도도 높고, 파도와 바람에 침식된 사암(砂巖)이나 이암(泥巖)이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 지질박물관이라고도 불렸다. 아시즈리해양관에는 큰 수조를 설치해 놓아, 고치현의 바다나 고로시오해역에서 서식하는 어류 등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수도량에 돌아오자 제2회 근행회를 곧 시작하려고 했다. 신이치는 구메가와 세이타로 시코쿠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하루에 동지를 몇 사람 정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략 2000명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고치의 모든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연구해주십시오. 나와 회원 여러분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없습니다. 또 절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권위, 권력이 되고 만다면 이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아닙니다."

신이치는 두번째 근행회에서도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닌, 만세 삼창을 제안하거나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등 온 힘을 다해 참석자를 격려하려고 애썼다.

이튿날 8일에도 오후 1시부터 근행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고치현뿐 아니라 에히메현 난요에서도 대표가 참석했다.

근행회에서는 고치현의 지침 세가지 중 '물과 같은 신심'을 언급했다.

"물이 흐르듯이 신심을 실천하려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끈기 강하게 거듭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확립하고 가정을 반석같이 만들어 발밑을 다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학회조직과 동지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심의 기본인 교학을 단단히 익혀, 자기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서 전편(全篇)을 배독하겠다는 기개로 교학에 진지하게 도전해주십시오."

8일 근행회에서도 신이치는 인사를 한 뒤 피아노를 연주했다. 마치고 나서는 참석자가 탄 버스를 배웅했다.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지들 속으로 들어가 말을 건네고 버스에 탄 사람들과도 차창 너머로 악수를 나눴다.

동행한 간부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신이치의 몸이 걱정이었다.

어느 간부가 "잠시라도 쉬십시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신이치는 온 힘을 다해 쉼 없이 격려했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지금, 내가 동지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한단 말인가! 지금밖에 없지 않은가! 격려하는 쪽에서 보면 몇 백대 일이지만, 동지에게는 일대 일이다. 격려에 대충은 없다!'

신이치의 마음은 맹렬히 불타올랐다.

여자부 간부가 "여자부원들이 연수도량 뜰에서 다과회를 엽니다. 꼭 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곧바로 그곳으로 갔다. 뜰 한쪽에 홍백색 막을 치고 다다미를 깔아 놓았다. 고토(거문고와 비슷한 현악기) 소리가 흐르는 속에 기모노 차림의 여자부원들이 차를 우려주었다. 눈앞에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배 한척이 하얀 궤적을 남기며 먼 바다로 나아갔다.

"경치가 정말 좋군요. 다들 쉬라고 하니, 잠시 쉬었다 가

겠습니다."

신이치는 부인부 멤버가 손수 만들었다는 과자를 먹고 차를 마셨다.

"과자도 차도 맛있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차도 맛이 일품입니다. 여러분이 입은 기모노도 잘 어울립니다. 고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주인공 '가쿠야히메'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더욱 국제화됩니다. 어학을 익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도(茶道), 꽃꽂이, 기모노, 고토, 일본무용 등 '이것이 일본문화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습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국제화란 무국적화(無國籍化)가 아닙니다. 일본다움, 더 나아가 고치다움을 지키고 습득하는 일이 국제인으로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결국,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났다. 훗날 이곳은 '희망의 뜰'로 명명되었다.

근행회 참석자들을 위해 고치연수도량 광장에 다코야키(문어 풀빵)와 돈지루(돼지고기 된장국) 등의 노점을 마련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곳에도 발걸음을 옮겨, 이엉(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지 등으로 엮은 물건)을 올려 만든 정자에 앉아 상황을 둘러보면서 고치의 현간부들과 간담했다.

시마데라 현장이 연수도량 정비작업의 중심자였던 장년부를 소개했다.

"아마미야 시로 지부장입니다."

신이치는 정중히 인사했다.

"크게 힘써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름이 시로이군요. 좋은 이름입니다. 아쓰하라 삼열사인 진시로(神四郎)가 생각납니다. 현대의 진시로가 되어 지역의 동지를 꿋꿋이 지켜주십시오."

아마미야는 눈동자를 빛내며 "예!" 하고 대답하고 신이치가 내민 손을 힘주어 잡았다. 몸집은 작지만 기개가 느껴졌다.

아마미야는 연수도량이 있는 도사시미즈시 인근의 하타군 오쓰키초에서 건축업을 했다.

열네살 때부터 목수의 길을 걸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특공대에 지원했다. 출격 명령이 떨어졌지만, 올라탄 전투기의 엔진 불량으로 연기되었다. 같은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자, 전쟁이 끝나고 말았다. 전쟁 뒤에는 목수 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해, 이윽고 결혼도 했다. 고향인 오쓰키초에서 토목회사를 차렸다. 차츰 꿈을 키워 영업에도 힘을 쏟았다.

노력 끝에 일이 궤도에 오르자, 거의 날마다 저녁이면 거

래처와 술자리를 함께해야 했고 주량도 늘었다.

어느 날부터 복부에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도 참고 술자리에 나갔다. 결국 한계에 달해 서둘러 병원에 가보니 신장병이라고 했다. 이제 좀 일이 잘되는가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바뀌었다. 이어지는 복부통증, 커지는 초조함…. 그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아내인 시게미에게 주사를 부렸다. 보다 못한 처형이 입회를 권유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와 함께 신심(信心)을 시작했다. 1962년 10월이었다.

신심이란,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여명을 불러오는 희망의 광원이다.

아마미야 시로는 도사의 '쾌남아'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신심을 시작한 이상, 철저히 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학회의 지도대로 조석근행에 힘쓰고 진지하게 창제를 거듭했다.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아내에게 주사를 부리는 일도 없어졌다. 그리고 복부통증이 사라졌다. 건강을 차츰 회복했다.

'굉장하다! 이 신심은 진짜구나!'

그 기쁨이 부부를 홍교로 달리게 했다.

그러나 지인도, 친척도 모두 신심을 반대했다. 학회를 눈

엣가시로 여기는 건설관계자도 많아 일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작은 하천의 복원공사 등을 하며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심으로 몸도 마음도 궁지에서 벗어나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게 된 체험이 부부를 지탱해 주었다.

아마미야는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다른 종교는 반대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창가학회라고만 하면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감정적으로 비난한다.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는데, 학회의 교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입회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어처구니없는 종교라고 정해 버린다. 올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학회원들의 말이 옳다.'

아마미야는 더욱더 강하게 확신했다.

'나는 전쟁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살아남아 신심을 만났다.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하타의, 오쓰키초의 광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자!'

이렇게 결의한 아마미야는 지역에서 신뢰를 쟁취하려고 성실히 일했다. 아마미야가 손을 댄 공사는 고객이 모두 만족했다. 또 아무리 바빠도 밤을 세워서라도 납기를 지켰다. 아마미야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차츰 신뢰

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불법즉사회(佛法卽社會)이다.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는 삶의 자세가 확립되면, 사회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신심의 승리가 생활의 승리가 된다.

아마미야 시로, 아마미야 시게미 부부는 함께 지역광포의 초창기 역사를 구축하고, 광포 제2장인 지금도 지부장·지부부인부장으로서 지역과 사회를 위해 역주(力走)를 계속하고 있었다.

아마미야는 회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마음속에 미혹이 있으면 열의를 갖고 신심에 도전할 수 없고, 힘을 낼 수도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도 **'한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두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엇갈려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어서 146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확고히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정한 신심을 해야 자신의 힘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고, 큰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미야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청정한 신심'을 맹세하고, 온 힘을 다해 활동에 힘썼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에서 아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필사적으로 투쟁하신 분이 오늘날 광선유포의 흐름을 열었습니다. '쾌남아 만세!'입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큰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해 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완고한 성격은 자칫하면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는 단결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자유롭게 전진하려면 리더의 포용력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의 강성한 신심을 자녀들에게도 전하기 바랍니다.

광선유포의 진정한 승부처는 21세기 입니다."

아마미야는 결의를 확인하듯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이치는 아마미야를 현창하는 뜻에서, 이 광장의 명칭을 아마미야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 어떻겠냐고 방면· 현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저명인을 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이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분투한 무명(無名)의 민중리더들의 이름을 나무나 정원 등에 붙여 영원히 현창하려고 노력했다. 그 속에 바로 만인평등을 설하는 불법의 안목(眼目)이 있고, 민중을 왕으로 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에히메현 난요에서 온 멤버를 비롯해 노점의 스태프와도 기념촬영을 했다.

그러고 나서 현지멤버의 권유로 근처에 있는 아시즈리해

저관 등을 방문했다.
저녁에 고치연수도량으로 돌아온 신이치는 현지의 하타지역본부 대표들과 간담했다.
그리고 연수도량 목욕탕에서 스태프 남자부원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간담을 계속했다. 탕에 몸을 담그고 멤버들의 직장, 가정생활, 학회활동 등을 물었다.
신이치는 하타지역본부 면적이 가가와현과 거의 같다고 듣자, 지역본부 남자부장인 미야니시 마스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광대한 지역이군요. 산도 많고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게다가 멤버들의 직업과 생활리듬 등, 여러 면에서 대도시인 도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도쿄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이곳답게 모두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인 여러분이 '이 지역의 광포는 우리 손으로 이루자.' '우리가 모두 책임지자.'고 결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때는 21세기입니다. 그때를 목표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청년이 넓힌 우정의 스크럼이 그대로 미래에 학회의 크기가 됩니다. 부탁합니다!"

신이치가 미야니시에게 요청 사항은 없느냐고 묻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수도량 사무실에 복사기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복사기가 없어 행사일정이나 전달사항 등을 등사판으로 작성해 배부하고 있었다.

"내가 본부에 부탁해 보겠습니다."

신이치는 전면적으로 응원하고 싶었다. 곧바로 도쿄에서 함께 온 간부에게 복사기 설치비용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미야니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당신을 '복사기장(長)'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복사용지 한장도 모두 학회원의 정재(淨財)이므로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에서 스태프들과 목욕을 한 뒤, 모두 함께 로비로 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그머니 귀가하려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저 분은?"

신이치가 시마데라 현장에게 물었다.

"도사시미즈의 여자부 대블록장(지금의 지구리더)인 가나야마 도모미 씨입니다. 연수도량 사무실에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실은 교원병(膠原病)을 앓고 있어,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가

거칠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행사준비에 힘썼다고 한다. 신이치는 가나야마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힘주어 격려했다.

"신심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숙명전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을 고치겠다고 정하고 제목을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 200만번, 300만번 진지하게 끝까지 기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 따위에 질 수 없다!'는 강한 일념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지요?"

"예…."

긴장한 탓인지 목소리가 가늘었다.

신이치가 타이르듯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가 작군요. 그렇게 약한 목소리로는 병마를 타파할 수 없습니다. 생기발랄하게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지겠다! 결단코 이겨내겠다!'는 사자(師子)의 기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결의가 담긴 밝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렇지요! 그런 기개로! 저도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제천선신(諸天善神)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가나야마의 볼에 혈색이 돌고 눈동자는 맹세로 빛났다.

신이치도 안심한 듯 미간을 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가나야마는 힘차게 일어섰다.
그 뒤, 가나야마는 멋지게 병을 이겨냈다. 그리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도사시미즈광포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12월 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고치연수도량에서 3박 4일에 걸친 지도를 마치고, 고치시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정오가 지나서부터 연수도량에 모여온 40~50명 가량과 함께 근행하고 출발하기로 했다.
근행을 마치고 모두를 향해 돌아보자 "선생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보청기를 낀 고령의 남성이었다. 도사시미즈시 중심부에서 20여킬로미터 떨어진 산촌에서 가장 먼저 입회한 시바야마 다사부로였다. 그 마을은 야생 너구리와 산토끼가 서식하는 산골에 있었다.
시바야마는 병약한 아내가 큰 걱정이었다. 근처에 병원도 없었다. 1958년, '아내가 건강해 질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신심을 시작했다. 그리고 학회의 지도대로 홍교하러 다녔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졌군!" 이라고 험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시바야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바야마도 도사의 '쾌남아'였다.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반년이 지나자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이 어본존은 굉장하다! 어떤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이 홍교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광선유포의 원동력은 어본존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고, 공덕에서 나오는 환희(歡喜)이다. 체험으로 그 확신과 환희를 실감하고, 대법홍통(大法弘通)의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광포의 흐름은 일어나는 법이다.

시바야마는 이날 지역광포의 발전을 신이치에게 보고하려고 아내와 아들 셋을 데리고 연수도량에 달려왔다. 시바야마는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 마을은 목표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회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주민의 절반 정도가 학회원입니다. 어떻게든 광선유포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이 남성에게 다가가 끌어안듯이 하면서 손을 꼭 잡았다.

“신념이 빚어낸 승리입니다. 탄복할 따름입니다!”

신이치는 고령인 시바야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렇게 말했다.

"만나서 다행입니다. 동지도 없는 산골마을에서 병약한 부인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감연히 일어서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지요. 괴로운 일도 많으셨겠지요. 몇번이고 분한 눈물을 흘리셨겠지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어본존을 끌어안듯이 하면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佛法)의 정의를 끝까지 외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지용보살의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공로자이십니다.

입으로만 광선유포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날마다 고심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려 간다.' — 그러한 착실한 실천 속에 세계광포도 있습니다. 나는 다기진 서민의 왕자(王者)인 당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날마다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부디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지역의 동지를, 마을의 모든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시바야마는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시코쿠총합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를 비롯한 간부들에게 시선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이 마을의 광선유포를 결의하고 투쟁하셨듯이, 목표를 정하고 신심에 힘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도 좋고, 자치회도 좋고, 이웃사촌도 좋습니다. 또 일가

친척도 좋겠지요. 그곳을 반드시 광선유포하겠다고 정하고, 해마다 구체적인 전진의 목표를 세워 도전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래도 타성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신이치는 훗날 시바야마에게 지팡이를 선물했다.

시바야마는 그 지팡이를 긍지로 삼고, 여든살 가까이 되어서도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는 홍교하러 힘차게 나갔다고 한다.

"오늘 저녁은 달이 밝군. 절복하러 가야겠는걸. 야마모토 선생님과 약속했으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광선유포의 맹세를 완수하고자 꿋꿋이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이고 동지이다.

신이치의 격려는 고치연수도량을 출발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로비에서도 에히메현 난요에서 온 부인부원에게 말을 건네 난요를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악승의 횡포에 눈물을 흘려온 동지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연수도량 현관을 나온 신이치는 웅대한 경관을 생명에 새기려는 듯, 잠시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배웅하는 동지에게 손을 크게 흔들고 차에 올라탔다.

신이치는 그 길로 아시즈리곶으로 갔다. 그곳에서 식당과 토산품가게 등을 운영하는 학회원을 격려하고 싶었다. '동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자!'고 마음을 정한 터였다.

차는 언덕길을 타고 내려와 국도를 따라 아시즈리곶 방향으로 달렸다. 오른편으로 파란 바다가 펼쳐졌다. 도사시미즈시 중심가를 지나 지방도인 아시즈리 스카이라인을 달려 아시즈리곶 등대 바로 앞에서 식당을 하는 학회원을 찾아갔다. 이 집은 좌담회 등의 회합장소라고 한다. 그곳에는 회원이 많이 모여 있었다.

신이치는 모두 함께 근행한 뒤, 밖으로 나가 오징어구이를 함께 먹으며 대화했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공기도 좋고, 아름답고 웅대한 자연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회활동을 한다니, 최고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사명의 무대입니다. 대도시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대도시는 자연도 없고 인간관계도 희박합니다. 도쿄 등을 동경해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결국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그리워합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자신이 있는 이곳을 모든 면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상적광토(常寂光土)로 만들어주십시오. 자신의 일념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 신이치는 "어본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약을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신이치는 식당에서 동지를 격려한 뒤, 차를 타고 아시즈리곶 등대로 갔다.

1킬로미터 정도 달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등대로 이어지는 입구 광장에 기모노를 입은 동상이 보였다.

대좌(臺座)를 포함한 동상의 높이는 6~7미터쯤 되었다.

시마데라가 곧바로 설명했다.

"선생님, 저 동상은 '나카하마 만지로'의, 그러니까 '존 만지로'의 동상입니다."

일행은 그 앞으로 가서 '만지로 동상'을 올려다보며 잠시 대화를 나눴다.

'존 만지로'라는 이름은, 작가 이부세 마스지가 쓴 소설 《존 만지로 표류기》가 나오면서 일본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신이치도 소년시절에 설레는 마음으로 읽은 추억이 있다.

나카하마 만지로는 1827년 1월 1일, 지금의 도사시미즈시 나카노하마에서 반농반어(半農半漁)로 살아가는 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소년기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도와 병약한 형을 대신해 필사적으로 일했다.

1841년 1월, 열네살이 된 만지로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동료 네 사람과 함께 표류하게 된다. 며칠 뒤 도착한 곳은 이즈제도의 무인도 도리시마였다. 철새를 잡아먹고 마실 물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다.

섬생활은 143일이나 이어졌다. 간신히 미국의 포경선 '존 하울랜드호'에 구출된 그들은 하와이 오아후섬으로 보내졌다. 일본은 쇄국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료 네 사람은 하와이에 머물게 되지만, 만지로는 그대로 포경선에 남아 항해를 계속하기를 희망했다. 만지로는 집이 가난해 글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총명했다. 선원들에게서 세계지도를 보는 방법과 영어 등을 배워,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했다. 강한 향상심과 향학심이 있으면 인생의 어떤 역경도 최고의 배움터가 된다.

모두들 만지로를 '존 만'이라고 불렀는데, 포경선 '존 하울랜드호'의 이름을 딴 애칭이었다.

포경선 선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지로를 사랑하고 신뢰했다. 그중에서도 화이트필드 선장은 향학심이 왕성하고 총명한 만지로를 아들처럼 아껴,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화이트 필드 선장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만지로는 매사

추세츠주 페어헤이븐의 학교에 들어가 영어· 수학· 측량· 항해술 등을 공부했다. 농사일을 도우며 맹렬히 공부했다. 선장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필사적이었다. 성적은 수석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포경선에서 일하며 항해사까지 되지만, 결국 귀국하기로 마음먹는다. 분명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몹시 걱정되었으리라. 또 차츰 험악해지는 미일관계를 걱정해 개항을 주장해야 한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만지로는 귀국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조난된 지 9년, 이미 스물세살이었다. 금광에서 금을 채굴해 자금을 마련한 만지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선을 타고 하와이로 건너가 호놀룰루에 정착한 동료와 재회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는 아직 쇄국이 계속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외이탈 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사형도 각오해야 했다. 만지로는 류큐로 가기로 했다. 류큐는 사쓰마번이 지배하에 있었지만, 독립한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상륙할 때 쓸 보트를 구입해 상하이로 가는 배를 얻어 탔다. 류큐 앞바다에서 보트로 갈아탔다.

만지로는 류큐, 가고시마, 나가사키, 도사에서 조사를 받고 고향에 돌아간 때는 1852년, 스물다섯살 때 였다.

만지로는 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활로를 열 수 있었다.
"희망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새벽빛을 불러온다!" — 이 말은 시인 괴테의 외침이다.
시대의 격류는 만지로를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시대가 만지로의 힘을 필요로 했다. 도사에서 만지로는 시분(士分, 무사의 신분)으로 임명되어 번교(藩校, 제후의 자제를 교육하는 학교)인 '교수관(教授官)'에서 가르쳤다. 이와사키 야타로와 고토 쇼지로도 만지로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에도로 초빙되어, 군함교수소에서 교수로 일하는 한편 번역도 했다.
그러나 그런 만지로를 질투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만지로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뛰어난 능력과 기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무사가 아닌 반농반어의 가난한 집의 자식이 중용되었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았으리라.
실력도 없고 입신출세나 보신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흉중(胸中)에 질투심을 불태우기 마련이다. 대업을 이루려는 영웅호걸은 질투의 돌팔매질을 각오해야 한다.
인간은 일단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증오심이 불타올라, 성취해야 할 전체의 목적이나 이상을 잊어버린 채 그 사람을 공

격· 배척하는 일이 목적으로 되고 만다. 그리고 온갖 이유를 찾아내 간사한 계책을 쓰면서 기를 쓰고 쫓아내려고 한다. 국가뿐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이 질투심이 전진과 발전을 방해하는 법이다.

만지로는 첩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미일친화조약 체결에도 힘썼다. 미일수호통상조약 비준서를 교환할 때는 견미사절단(遣美使節團)의 일원으로서 함선인 간린마루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통역으로 활약했다. 메이지시대로 접어들자 정부에서 그를 가이세이학교(도쿄대학교 전신) 영어교수로 임명했다.

신이치는 만지로의 생애를 떠올리며, 동행한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지로는 주위 사람들의 질투에 몹시 시달렸는데, 신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魔)는 광선유포를 방해하기 위해 외부뿐 아니라 학회 내부에서도 서로 질투심을 일으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마음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인간혁명의 투쟁입니다."

시마데라가 만지로 동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이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선생님, 이 동상은 화이트필드 선장이 살던 미국의 페어헤이븐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치가 “그렇습니까”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만지로는 보불전쟁이 일어나자 사찰단으로 유럽에 파견되는데,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미국 페어헤이븐을 20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부모이자 스승이기도 한 화이트필드 선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은인에게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은(報恩)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에게 보은 감사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은혜를 갚는 일보다 더한 의무는 없다”는 잠언을 남겼다. 보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만지로 동상에서 200미터 정도 걸어서 흰 등대 아래에 섰다. 눈 아래로 파도가 하얀 물거품을 내며 튀어 오르고, 저 멀리에는 푸른 바다가 아득히 펼쳐졌다.

동행한 현지 멤버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하군요….”

신이치는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모두 함께 명복을 빌고 제목삼창을 했다.

그러고 나서 학회원이 운영하는 토산품가게에 들러 격려한 뒤, 나카무라시(훗날 시만토시의 일부)에 있는 하타회관으로 갔다. 자동차가 도사시미즈시 중심가에 들어서자 도롯가에 세 사람, 다섯 사람씩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웅하러 나온 학회원이군요."

신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차를 세워 창문을 열고 말을 건넸다.

한번의 격려가 인생의 전환기가 되기도 한다. 한번의 만남을 생애 추억으로 삼아, 광선유포를 위해 끝가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 이렇게 생각하니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는 자신을 고무하며 사명의 역주(力走)를 계속했다.

신이치 일행이 하타회관에 도착한때는 오후 6시가 넘어서였다. 주변은 이미 어두웠다. 신이치는 마중 나온 관리인을 격려하고, 신이치의 도착을 기다리던 하타지역 멤버와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간담했다.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야만 생명은 빛난다.

40~50분 뒤에 하타회관에서 출발한 신이치는 고치시로 돌아가고자 나카무라역에서 열차를 탔다.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도 도중에 승차한 학회원 가족과 대화를 나눴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고치문화회관에 도착했다.

이튿날 12월 10일, '교학의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교학부 임용시험이 오후 1시부터 전국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신이치는 오전에 고치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때마침 만난 학회원을 격려했다.

오후에는 회관에서 임용시험 응시자를 격려한 뒤, 다른 시험장인 보육원으로 찾아갔다. 학회원이 운영하는 이 보육원에서 신이치는 응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심의 기본은 신행학(信行學)입니다. 교학을 연찬하고 이렇게 시험에 도전하는 모습이 인간으로서도, 불법자(佛法者)로서도 존귀한 구도(求道)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복운과 공덕을 쌓는 원천이 된다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심의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시험장을 나와 복도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니, 200명 가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응시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이분들은 응시자를 찾아가 임용시험에 도전하도록 설득하고 날마다 격려하며 교학을 가르쳤을 것이다. 성실함, 진지함, 끈기가 필요한 힘든 도전이었으리라. 거기에 인재육성의 왕도가 있고, 환희와 충실감이 있다. 그리고 창가(創價)가 추진하는 광선유포운동의 본류(本流)가 있다!'

신이치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념촬영을 제안하고, 세번으로 나누어 이날의 만남을 사진으로 남겼다.

신이치는 임용시험 장소를 제공한 보육원 원장 다카하라 요시미의 집에도 찾아갔다. 시험장을 제공해준 것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준비해간 색지에 '광복(光復)'이라는 휘호를 써서 선사했다.

다카하라는 자신이 걸어온 40여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다카하라는 결혼한 뒤 가난과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며 어린 자식을 키우고, 반신불수인 시아버지를 뒷바라지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장작불로 밥을 지어 가족의 아침밥을 챙겼다. 자신은 가족들이 남긴 음식을 대충 입에 넣고 농사일을 하러 뛰어나가는 하루하루였다. 몸도, 마음도 지쳐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입회했다.

시부모는 "며느리가 선조대대로 믿어온 종교를 바꾸다니, 당치도 않다."고 야단을 쳤다. 이웃에서는 '저 집 며느리가 남묘에 빠졌다.'고 비웃고, 마을에서 따돌리기까지 했다.

'신심을 그만둘까.' 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학회선배가 발이 닳도록 찾아와 '이 신심은 올바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마(魔)가 다투어 일어난다. 당신이 바뀌면 반드시 환경도 바뀐다.'고 확신을 담아 지도해 주었다.

격려가 사람을 사자(師子)로 만든다.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열심히 해보자. 이 신심으로 숙명을 전환하자!'

다카하라는 신심으로 역경을 하나하나 타고 넘었다. 그때마다 확신이 커졌다.

어느 날, 가지고 있던 땅이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그 자금으로 집 주위의 땅을 사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보육원을 짓기로 했다. 보육원 개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직원도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지역사람들도 여러모로 애쓰고 도와주었다.

다카하라는 기쁨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입회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행복한 경애가 되었습니다."

"신심을 단호히 관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신심이야말로 일체를 승리하는 힘입니다."

묘락대사(妙樂大師)는 **"반드시 마음의 견고함에 따라서 신(神)의 수호도 즉(卽) 강하니라"**(어서 1186쪽)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임용시험 응시자를 격려하고 고치문화회관에 돌

아와, 시코쿠대학회 멤버와 기념촬영을 했다. 오후 4시부터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블록장, 블록담당원(훗날 시라유리장: 한국의 반담) 근행회에 참석해 지도했다.

신이치는 제일선 조직의 리더와 만나는 일이 가장 즐거웠다. 블록이야말로 광선유포의 현장이다. 이곳에 창가학회의 실상이 있다. 우리 블록이 학회이다. 그곳을 떠난 어딘가에 특별한 학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블록을 건설하는 데 최대로 힘을 쏟아 강화시키고,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 이외에 광선유포의 발전은 없다.

신이치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강조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후회 없는 신심을!"

"신심즉생활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을 확립합시다."

그리고 만감을 담아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이 창가의 깃발을 당당히 내걸고 씩씩하게 일어선다면, 지역광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내 모습, 내 행동을 보십시오, 내 모습, 내 행동이 불법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 형제, 내 자매로서 나를 대신해 지역광포의 지휘를 부탁합니다."

'광포의 쾌남아‘ 창가의 여장부’에게 대승리 있으라! — 이렇게 염원하며 지도했다.
또 저녁에는 제1회 '고치현 남자부간부총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고치를 방문한 신이치가 제안한 총회였다. 신이치는 근대 일본의 여명을 여는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낸 고치의 땅에 차대의 기둥을 반석같이 세워두고 싶었다.
신이치는 '학회의 후계자로서 숭고한 신념을 품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바람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높은 산꼭대기에는 언제나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업을 이룬 사람은 모두 혹독한 중상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불법을 유포하는 우리 창가학회에 비난중상의 폭풍우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신이치가 고치 남자부원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청년부 시절에 형제 이상으로 동지와 굳게 결합해 온갖 투쟁을 해왔습니다. 모두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학회정신 하나로 오늘날의 평화와 문화를 추진하는 세계적인 단체 창가학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모두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자기 세대의 광선유포는 자신들이 개척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기나긴 광포여정의 인생에서는 가정문제, 직장문제, 자신

의 성격문제 등 많은 고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어쨌든 어본존에게서, 창가학회 조직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달리듯 하면서 따라간다.' '아무리 괴롭고 싫어도 따라간다.'—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또 한사람 한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공헌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의 광선유포를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미 창가학회라는 세계에서 청춘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신조로 그 인생을 선택했으므로 '누가 뭐라고 말하든, 이 불법을 생애 관철하고 죽겠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도, 그 시체를 넘어 광포의 봉우리를 등반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구로시오해류가 흐르는 고치의 남자부원에게 신이치는 광포의 정신이 담긴 바통을 의탁했다.

이튿날 11일은 고치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고치문화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인근지역 근행회를 열었다. 인근지역 근행회라고는 하지만 "올 수 있는 분은 모두 오십시오."라고 현 전체의 회원에게 연

락한 터라 회관 대강당이 참석자로 가득 찼고, 다른 회합실에도 사람들이 차츰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근행회에서 "'교학을 심화하고 법을 넓힌다.'—다시 말해, 심학홍법(深學弘法)을 우리 정신으로 삼아 강성한 신심으로 하루하루를 상쾌하게 보내기 바랍니다."라고 염원하면서 인사했다.

고치문화회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다. 신이치는 근행회를 한번 더 열었다. 그리고 창가동지(創價同志)의 유대를 강화하고, 불퇴의 신심을 관철하도록 정열을 담아 힘주어 말했다. 신이치는 단 한 사람도 일생성불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회관 1층으로 내려온 신이치는 운영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합창단의 피아노 연주를 담당한 여자부원이 신이치를 보자 이렇게 보고했다.

"선생님, 저는 히라오 미쓰코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치에서 선생님이 참석하신 근행회에 합창단으로 모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가족 중에 아버지만 아직 입회하지 않았는데, 저는 감격한 나머지 선생님의 지도를 아버지에게 날마다 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지어 주셨습니다."

미쓰코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크나큰 / 겨울 태양 같은 / 사람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도다"

신이치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상한 아버님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겨울 태양처럼 주위를 비추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란 딸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또 당신의 모습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공감해주시고 있군요.

딸인 당신의 성실한 행동이 아버님의 마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대승리입니다.

나도 아버님에게 시를 선사하고 싶군요."

하지만 곧 떠나야 할 시간인 데다 붓도 없었다.

"그럼, 아버님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시를 보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이치는 미쓰코 아버지 앞으로 보내는 토인비 박사와 엮은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미쓰코에게 전달했다. 그 책에는 시가 씌어 있었다.

"아버지의 은혜 / 딸의 행복 / 기원하는 하루하루"

아버지는 얼마 뒤 스스로 입회했다. 그리고 집을 회합장소로 제공하는 등, 학회를 지키는 든든한 장년부가 되었다.

고치문화회관에서 출발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일 오후 6시 전에 가가와현 아지초에 있는 시코쿠연수도량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이동에 따른 피로한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고 가가와현 최고회의에 활기차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가가와현은 2개 권, 1개 지역본부의 포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튿날 12일 오후에는 도쿠시마현에서 대표 2800명이 연수도량에 모인 가운데 제1회 현간부총회가 열렸다.

신이치는 개회 전에 청년 20여명과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1969년 10월, 가가와현립체육관에서 시코쿠간부회를 열었을 때 합창을 선보인 '가가와소년소녀합창단' 멤버였다.

신이치는 시코쿠간부회가 끝난 뒤, 어린 합창단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전국, 전 세계 소년소녀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위대한 인재가 육성되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10년 뒤에 또 만납시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뒤' — 이 말이 어린 합창단원의 목표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째에 접어든 지금, 멤버들은 신이치가 시코쿠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해, 기뻐하며 씩씩하게 달려왔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멤버들은 늠름하고 발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신이치는 기뻤다.

"잘 왔습니다! 정말 많이 컸군요!"

신이치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고,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모두 이날을 목표로 창가의 훌륭한 후계자로 성장하자고 결의하고, 입시와 취업, 그리고 학회 활동으로 분투했으리라.

결의는 대성(大成)의 씨앗이다. 하지만 결의를 성취하려면 하루하루 착실한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승리의 실증이 존귀한 이유는, 끈질긴 정진(精進)의 축척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21세기를 의탁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지 않아야 합니다. 올곧게 성장해야 합니다. 올곧게 성장해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힘찬 대답 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간부회 때 부른 '치티 치티 뱅뱅' 과 '다이난코(大楠公)'를 새로운 맹세를 담아 합창했다.

도쿠시마현 간부총회에서는 현의 조직이 1개 권, 3개 지역 본부로 출발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듬해 ‘인재육성의 해’를 향해 상쾌하게 도움닫기 하는 총회가 되었다.

신이치는 인사하면서 **“이것을 보더라도 법화경의 행자는 신심에 퇴전이 없고 몸에 사친(詐親) 없이 일체(一切) 법화경에 그 몸을 맡기고 금언(金言)과 같이 수행하면 틀림없이 후생(後生)은 말할 것도 없고, 금생(今生)도 식재연명(息災延命)하여 승묘(勝妙)의 대과보(大果報)를 얻어 광선유포(廣宣流布)의 대원(大願)마저도 성취할 것이니라”**(어서 1357쪽)라는 성훈을 배독하고 지도했다.

“이 부분에서는 신심의 올바른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결코 퇴전하지 말고 거짓 없는 강성한 신심을 관철하고, 일체를 어본존에게 맡기고 부처님 말씀대로 불도수행에 힘쓰기 바란다. 그러면 후생은 물론이고 금생에서도 안온하고 장수하는 인생을 장식하고, 훌륭한 대공덕을 받아 광선유포의 대원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생애 신심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각오’야말로 일체를 승리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알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쿠시마 여러분은 청류와 같이 깨끗하고 지속적인 신심을 관철해, 내년에도 유유한 사자(師子)와 같은 한해를 보내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신이치는 총회 뒤에도, 현의 대표간부와 간담을 나누고 도쿠시마의 희망 가득한 미래도(未來圖)를 서로 이야기했다.

지도차 시코쿠를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시코쿠 연수도량을 출발하기 직전까지 스태프들과 함께 근행하는 등, 격려로 시작해 격려로 끝났다.

이날 신이치가 도쿄 시나노마치의 학회본부에 도착한 때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였다. 간부들이 보낸 보고서와 밀린 결재서류가 신이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분투는 이어졌다.

토인비 박사는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늘 일하고, 더욱이 온 힘을 다해 일한다.' — 이것이 내 양심이 내게 부과한 의무였다."

신이치도 같은 신념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다. 자신의 인생과 민중의 승리를 위해.

시코쿠에서 돌아오고 이튿날인 14일부터도 신이치의 일정은 가득 차 있었다.

교육부 기념근행회와 본부간부회, 소련의 대외우호문화교류단체연합회(대문련) 의장 일행과의 회담, 도쿄 하치오지권 대표간부회, 도쿄 지부간부회, 지바현 지부간부회, 이바라키현 지부간부회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브라이언 R. 윌슨 사회학 교수와 회담 등,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언제 투쟁하겠는가! 때는 지금이다! 이순간이 바로 황금의 때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면서 전개한 감투(敢鬪)였다.
그리고 12월 26일에는 지도차 간토를 방문했다. 도치기현의 아시카가회관(훗날 아시카가문화회관)을 첫 방문하고 근행회에 참석했다. 27일에는 군마현 다카사카시(市)의 군마센터를 방문해 근행회 등에 참석하고, 이튿날 28일에도 군마센터에서 대블록 간부를 대상으로 근행회를 열었다. 그러고 나서 약 10년 만에 다카사키회관을 방문하고, 이날 저녁 9시 전에 학회본부로 돌아왔다.
신이치는 12월 마지막 날까지 소카대학교와 소카학원의 교원들과 간담하고 세이쿄신문사에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온 힘을 다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격동의 한해였다. 창가의 횃불을 드높이 들고 끝가지 역주(力走)한 한해였다.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건설의 한해였다.
이 1년 동안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남쪽으로 규슈까지 10개 방면, 1개 도(道), 2개 부(府), 25개 현을 방문하고, 해외는 제4차 방중도 이루었다.
회담한 지식인과 지도자는 국내외 20여명을 헤아렸다.
또 각부서와 각 지역의 학회가를 30여 곡이나 작사했다.
12월 마지막 날 밤, 귀가한 신이치는 대문 앞에 서서 하늘

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별이 마치 제천이 웃는 모습처럼 보였다. 거듭되는 격전과 격투 속에서 필사적으로 지휘한 한해가 끝나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의 흉중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

오로지 사자(師子)와 같은 투혼이 뜨겁게 끓어오를 따름이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일어라, 나는 가노라.'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신이치의 두 뺨에 느껴지는 겨울공기가 기분 좋았다.